수시연구 2013-04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Policy Direction for Promotion of Marine Leisure Sports

2013. 12.

홍장원 · 이종훈 · 이정아 · 이보람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홍 장 원: 1장, 2장(1절, 4절), 4장(1절, 3절), 5장
- 연구진
  - 이 종 훈: 3장(1절), 4장(2절)
  - 이 정 아: 3장(2절, 3절)
  - 이 보 람: 2장(2절, 3절)

◆ **산 · 학 · 연 · 정 연구자문위원**

- 김 용 식(한국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이사)
- 오 종 열(더위네이브 대표이사)
- 심 상 철(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황 기 형(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머 리 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해양레저, 해양스포츠는 비교적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다와 물을 금기시해 온 우리 조상들의 뿌리 깊은 토속적 믿음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해양문화의 발달이 더디고, 놀이와 체육활동의 장으로 바다를 활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제도와 정책전개가 아직까지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가치소비가 중요시 여겨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 관련 업무가 새로이 재출범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확산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양문화가 성숙한 일부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종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와 분석주기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등은 나라마다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19가지로 분류하여 활동별 참여율, 참여자 규모, 평균 참여일과 연간 총 참여일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영국은 23가지 활동을 연안과 내륙으로 구분하여 참여자수, 참여율, 동호회 및 클럽 가입비율과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레저스포츠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28가지의 레저스포츠활동에 스쿠버와 요팅, 보팅 등 해양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참여율과 활동인구 등을 매년 조사, 분석하여 레저백서로서 발간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활동공간과 규모 그리고 활동 지원시설의 여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자료도 제대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개념 정립과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로는 홍보와 정보교류 등을 통한 대중화 체계 구축, 교육과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활동공간 조성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초통계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의 홍장원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이종훈 부연구위원, 이정아 연구원 그리고 이보람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확산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심상철 사무관, 오종열 대표이사, 김용식 이사 등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에 감사함을 전하며, 황기형 연구감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성 귀**

차 례

Executive Summary ——— i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방법 ····· 5
4. 선행 연구 검토 ····· 6
   1) 선행 연구 현황 ····· 6
   2) 시사점 ····· 8

제2장 해양레저스포츠 여건분석 ——— 9

1. 해양레저스포츠 개념 및 국내환경 ····· 9
   1) 해양레저스포츠 개념 ····· 9
   2) 국내레저스포츠 환경 ····· 15
2. 해양레저 및 관련 정책 분석 ····· 18
   1)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시장동향 ····· 18
   2) 관련정책분석 ····· 20
3. 해양레저활동 실태분석 ····· 27
   1) 활동실태 ····· 27
   2) 동호회 현황 ····· 31
   3)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현황 ····· 33
   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 36

4. 시사점 ····· 39

제3장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조사 ——— 41

1. 국내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 41
1) 해양수산부의 해양스포츠제전 ····· 41
2) 해양레저 이벤트 행사 ····· 43
2. 주요 국가별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 46
1) 미국 ····· 46
2) 영국 ····· 57
3) 일본 ····· 65
4)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 68
3. 종합분석 ····· 79
1)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다양화 유도 ····· 79
2)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유도 ····· 80
3) 해양레저스포츠 거점공간 개발과 홍보연계 ····· 81

제4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 83

1. 정책추진영역과 추진방향의 설정 ····· 84
1) 정책추진영역의 설정 ····· 84
2)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 85
2.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도출 ····· 87
1)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87
2) 정책과제별 추진 방향 ····· 88
3.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94
1) 기초통계의 확보 ····· 94
2) 정책추진 기반 구축 ····· 9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96

1. 연구의 결론 및 요약 ····· 96
2. 정책제언 ····· 97

참 고 문 헌 ——— 98

표 차 례

표 1-1. 선행 연구 현황 ····· 7
표 2-1. 여가활동의 유형 ····· 10
표 2-2.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 17
표 2-3. 스포츠활동 참여희망 사항 비교 ····· 18
표 2-4. 연도별 수상레저 활동자 수 ····· 20
표 2-5.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03. 12) ····· 21
표 2-6. 해양관광진흥 세부 실천계획(2007) ····· 22
표 2-7.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1. 11) ····· 23
표 2-8. 스포츠 비전 2018 주요 내용 ····· 24
표 2-9.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전략 ····· 25
표 2-10.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주요내용 ····· 26
표 2-11. 레저스포츠시설 육성 지원사업 주요내용 ····· 27
표 2-12.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 31
표 2-13.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 종류 ····· 34
표 2-1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증 연수기관 및 선발인원 ····· 36
표 3-1. 해양스포츠제전 경기종목 및 주요내용 ····· 42
표 3-2. 국내요트대회 현황 ····· 44
표 3-3. 미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분류 ····· 48
표 3-4.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수 전망(2000~2010) ····· 49
표 3-5.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투입일 전망(2000~2010) ····· 50
표 3-6.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율(2000~2010) ····· 51
표 3-7.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치(2000~2010) ····· 53
표 3-8.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구분 ····· 54
표 3-9.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수 전망(2000~2010) ····· 55
표 3-10.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투입일 전망(2000~2010) ····· 55
표 3-11.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율(2000~2010) ····· 56

표 3-12.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치(2000~2010) ····· 57
표 3-13. 수상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조사의 시기별 변화 ····· 59
표 3-14. 영국 수상레저활동 참여자수 및 참여율 ····· 61
표 3-15.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 62
표 3-16. 수상레저활동 참여자 중 동호회/클럽 가입자수 및 비율 ····· 63
표 3-17. 일본 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율 추이 ····· 66
표 3-18. 일본 레저스포츠 활동 참가인구 변화 추이 ····· 67
표 3-19.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 69
표 3-20.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72
표 4-1. 수상레저스포츠 사망자 현황 ····· 91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 5
그림 2-1. 스포츠 관광의 유형분류 ····· 12
그림 2-2. 레저스포츠의 영역 분류 ····· 12
그림 2-3. 레저스포츠의 공간적 분류 ····· 13
그림 2-4.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 ····· 14
그림 2-5.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추이 ····· 15
그림 2-6.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 16
그림 2-7. 가계 최종소비지출 대비 레저비 비중 ····· 19
그림 2-8. 수상레저사업장 변화 추이 ····· 19
그림 2-9. 해양관광활동 참여율 변화 ····· 28
그림 2-10.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경험년수 및 소요비용 ····· 29
그림 2-11.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장비보유 및 동호회 활동 여부 ····· 29
그림 2-12.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만족도 ····· 30
그림 2-13. 낚시어선 이용인원 및 운영소득 ····· 30
그림 2-14. 2013년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별 동호인 수 ····· 32
그림 2-15.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 수 변화추이 ····· 32
그림 2-16. 2013년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별 동호인 수 ····· 33
그림 2-17.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 수 변화추이 ····· 33
그림 2-18. 해양레저스포츠 여건 종합분석 ····· 39
그림 3-1.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기종목 ····· 42
그림 3-2.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의 장기적인 추세 ····· 62
그림 3-3. 수상레저활동 참여빈도와 동호회/클럽 가입율 ····· 64
그림 3-4.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 로고 ····· 68
그림 3-5.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 소개 웹사이트 ····· 69
그림 3-6. National Marina Day 홈페이지 ····· 70
그림 3-7.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캐나다) ····· 71

그림 3-8. Tackers 프로그램 소개 웹사이트 ····· 72
그림 3-9. Tackers 프로그램 로고 및 캐릭터 ····· 73
그림 3-10. Tackers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 74
그림 3-11. 호주 Tackers 프로그램 조직도 ····· 74
그림 3-12. 일본 바다의 역 지정현황 ····· 76
그림 3-13. 일본 UMI channel 포털 ····· 77
그림 3-14.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5대 핵심메시지 ····· 78
그림 4-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영역 ····· 85
그림 4-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본방향 ····· 85
그림 4-3.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생태계 구축 ····· 86
그림 4-4.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 87
그림 4-5.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사업과 홍보체계 ····· 88
그림 4-6.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체계 구축 ····· 89
그림 4-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포털 ····· 91
그림 4-8.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 93
그림 4-9.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의 기능 ····· 93

Executive Summary

Policy Direction for Promotion of Marine Leisure Sports

1. Purpose

○ The study aimed to present policy direction in preparing a master plan on marine leisure sport promotion after analyzing relevant basic environmen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 It examined the basic concept, activities and condition of marine tourism and marine leisure sports. Based on the analyses, it recognized essential environment necessaryfor marine leisure development.
-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institutions, the study suggested policy direction and supporting system to promote marine leisure sports in Korea.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 It conducted literature analyses and cases studies on the US, the UK and Japan to prepare definition of marine leisure spor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 It held advisory meetings and workshops with experts in the field.

2) Feature

○ The study presented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policy tasks to vitalize marine leisure sports in Korea.

3. Results

1) Summary

○ As public demand for leisure activitiesbecame diversified, government has tried to boost marine tourism in various ways. However, the concept has not been and analyses on environment for marine leisure sport were not sufficient.

○ Policies to promote marine leisure sports aredirected towards; spread of ‘water friendly culture’ and development of high added value marine leisure industry focused on leisure boats.

- Under such basic direction, policy tasks include: system development for popularization of marine leisure sports programs for marine leisure sports education and safety and spaces for marine leisure sports activities.
-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ic statistics should become availabl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kept in order and mid- and long-term plans need to be prepared.

○ Policies for marine leisure sport vitalization and their development into a new growth driver

- Most of all, ‘water friendly culture’ should become prevalent based on systematic educational foundation, spaces for activities and supportive

system.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need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for high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con sidering uniqueness of tourism industry.

2) Policy contribution

○ The study presents basic direction for a master plan on marine leisure sports promotion and supportive policies.

○ It suggests measures for new ocean industrial development under ‘creation of new ocean growth driver and systematic marine management.’ It also proposes basic direction for policies to sharpen edge of tourism industry.

3) Expected benefits

○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diversifying marine tourism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while boosting marine tourism in coastal areas.

- It helps to expand the base for marine tourism by promoting easy ac cess to marine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public interest in the ocean.
- It contributes to developing coastal areas and marine tourism by boost ing new tourism activities and space development in coastal area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연계되어야 발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으로 지역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높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하여 관광자원개발, 관광지·관광단지·관광기반시설 조성,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방한 외래관광객 1,100만 명 시대를 열면서 세계관광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관광정책이나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해양자원이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는 해양공간에서의 친수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과 더불어 해양관광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지 못한 점 및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과 더불어 국정과제에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가 포함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레저' 부문의 정책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에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해양레저분야에 대한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해양레저' 혹은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이 연안공간별로 전개되고 있으나 해양레저에 대한 기초적 개념과 함께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이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해양레저와 관련된 활동공간, 시설 여건, 제약요인 등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현황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해양레저는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해변산책이나 해변휴식, 해수욕장 활동에서 바다낚시, 레저보트, 스킨스쿠버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양레저나 스포츠에 대한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해양레저가 수상레저활동의 영역 속에 포함되어 모터보트나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세부범위나 활동여건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 또한 마련되지 못했다.

과거 해양관광 혹은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은 대부분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하는 하계 휴양활동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은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바나나 보트나 모터보트 탑승, 바다낚시 정도였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계류시설의 정비나 바다낚시 활동공간의 조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여가행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해양공간에서의 관광수요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레저보트 활동과 더불어 스킨스쿠버, 도서탐방, 크루즈관광에 이르기까지 관광활동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양레저 수요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수문화의 보급과 함께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홍보 및 이벤트의 개최를 통한 시장수요의 확대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해양레저 육성정책은 연안지역 관광개발, 지역축제 육성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활동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새롭게 재출범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스포츠분야의 중장기 전략수립을 통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도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의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초적 환경 분석도 요구되지만 이를 위한 정책연구도 크게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기초환경을 분석하고 국내외 해양레저관련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레저활동, 스포츠 활동, 해양레저와 관련된 기초적 개념과 활동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기초환경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념정립과 레저활동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하고 현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국내외 사례분석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분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양레저 선진국들의 해양레저활동 동향분석과 해양레저활동 육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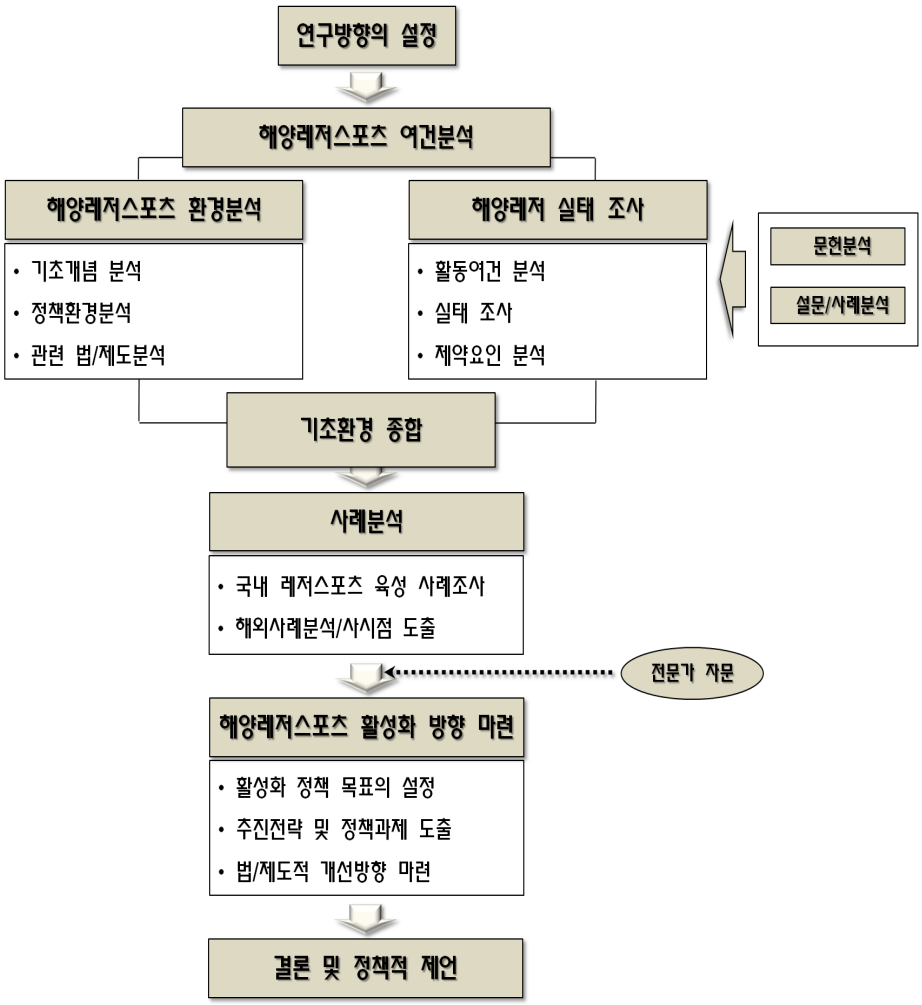
셋째,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국내 여건분석과 함께 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책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하도록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을 조사·통계자료 수집의 기준연도로 설정하도록 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 연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는 국내 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정립을 통하여 해양레저활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국내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기초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도록 한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해외 해양레저활동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양레저 선진국가들에서 해양레저의 대중화나 친수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여건과 비교하도록 한다. 국내 여건분석 및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도출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그림 1-1 | 연구의 수행과정

2) 연구방법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마련을 위해서는 레저 및 스포츠에 대한 기초 개념 및 범위의 설정이 요구되므로, 관련 문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에서는 국내 레저 및 해양레저와 관련된 기초 환경 및 정책여건 등을 검토하고 제약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사례분석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들의 해양레저활동 동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방향의 설정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을 얻도록 한다.

4. 선행 연구 검토

1) 선행 연구 현황

우리나라는 각 해역별로 다양한 관광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관광자원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나 스포츠의 활성화 전략이나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양레저나 스포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양관광의 영역 속에 레저스포츠 부문이 세부 분야로 포함되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기반시설 정비차원에서 정책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또한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해양레저산업이라고 표현되면서 대부분 마리나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마리나산업에는 보트건조나 마리나시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해양레저와 관련된 정책연구들은 대부분 시설여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설의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중장기 육성전략이나 방향설정은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 표 1-1 | 선행 연구 현황

구 분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해양관광 통계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 연구자(년도): 이원갑 외(2011) - 연구목적: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통계기반구축, 법령정비 등 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	-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	- 해양관광실태분석 및 변화 전망, 해양관광 정책추진 방향 설정 - 해양관광 테마·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추진사업 마련 - 해양관광정책 지원체계 마련 및 법령정비 방안 마련 - 정책적 시사점
	2	- 과제명: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연구용역 - 연구자(년도): 김성귀 외(2006) - 연구목적: 마리나 및 해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이용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문헌조사 - 설문조사(전국민 설문조사)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국내 해양관광활동 여건 분석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마리나, 해중공원) 조성 방안 -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3	- 과제명: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자(년도): 최도석 외(2009) - 연구목적: 부산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여건분석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세계 각국의 해양레저장비산업 동향 및 향후수요 - 우리나라/부산지역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여건분석 -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저해요인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차별성		-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의 기초적 개념 정립을 위해 문헌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를 실시함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워크숍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중장기 추진과제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과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양레저 활동여건과 법제도적 여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에는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현황분석이나 실태조사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레저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보고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른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제 2 장 해양레저스포츠 여건분석

이 장에서는 제1장의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레저 및 스포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국내 해양관광활동 현황 및 해양관광육성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책범위를 설정하였다. 해양레저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해양관광의 여건과 해양관광 육성정책을 비롯하여 레저나 스포츠 관련 육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레저 및 스포츠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벤트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1. 해양레저스포츠 개념 및 국내 환경

1) 해양레저스포츠 개념

(1) 레저와 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국내 환경분석과 정책의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해양레저스포츠는 연안육역과 더불어 해중공간을 포함한 모든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활동 공간을 한정지을 수 있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해양레저스포츠의 영역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범주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레저(Leisure)는 인간이 여가시간에 무엇인가 자유로운 활동이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김성귀, 2013). 즉, 레저는 인간이 노동시간 이외의 자유시간에 행하는

모든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정의에 따르면 여가는 일하고 남는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취침, 식사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표 2-1 | 여가활동의 유형

구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문화예술관람활동	전시회 관람(미술, 사진, 건축, 디자인 등),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클래식, 오페라 등), 전통예술공연 관람(국악, 민속놀이 등), 연극공연 관람(뮤지컬 포함), 무용공연 관람, 영화보기, 연예공연 관람(쇼, 콘서트, 마술 쇼 등)	관광활동	문화유적방문(고궁, 절, 유적지 등),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국내캠핑, 해외여행, 소풍/야유회, 온천/해수욕, 유람선 타기, 테마파크 가기/놀이공원/동물원/식물원 가기, 지역축제 참가, 자동차 드라이브
문화예술참여활동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미술활동(그림, 서예, 조각, 디자인, 도예, 만화 등), 악기연주/노래교실, 전통예술 배우기(사물놀이, 줄타기 등), 사진촬영(디지털 카메라 포함), 춤/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취미오락활동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십자수, 비즈공예, D.I.Y., 꽃꽂이 등),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노래방 가기, 인테리어(집, 자동차 등), 등산, 낚시,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인터넷 검색/채팅/UCC 제작/SNS, 게임(인터넷, 닌텐도, PSP, PS3 등), 보드게임/퍼즐/큐브 맞추기, 바둑/장기/체스, 갬블(경마(륜), 카지노, 카드놀이, 고스톱, 마작 등)/복권구입, 쇼핑/외식, 음주, 독서/만화책 보기, 미용(피부관리, 헤어관리, 네일아트, 마사지, 성형 등),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공부·학원 등 이용
스포츠관람활동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 경기장방문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간접관람 - TV, DMB를 통한 관람(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격투기 경기관람, 온라인게임 경기 현장관람(e-스포츠 경기 포함)	휴식활동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TV시청(DMB/IPTV 포함), 비디오(DVD) 시청,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신문/잡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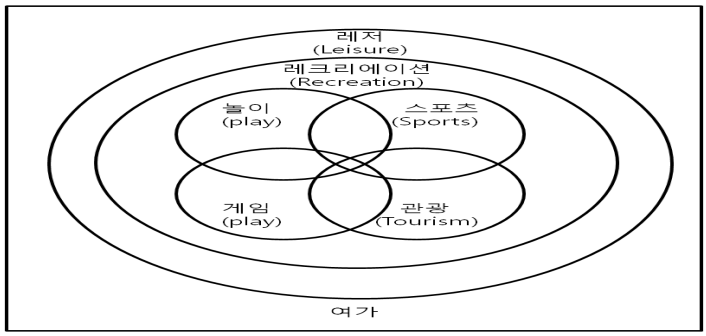
| 표 2-1 | 여가활동의 유형(계속)

구분	활동내용	구분	활동내용
스포츠참여활동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테니스, 스쿼시, 당구·포켓볼, 볼링, 탁구, 골프, 수영,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요트, 스노보드, 스키 등, 아이스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등, 헬스(보디빌딩)/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태보, 배드민턴/줄넘기/맨손스트레칭체조/훌라후프, 육상/조깅/속보, 격투기운동(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권투 등), 댄스스포츠(탱고, 왈츠, 자이브, 맘보, 폴카, 차차차 등), 사이클링/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승마, 암벽등반, 철인삼종경기, 서바이벌	사회및기타활동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나이트/디스코/카바레 가기,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계모임/동창회/사교(파티)모임, 이성교제(데이트)/미팅/소개팅, 친구만남/동호회 모임,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12.

여가에는 스포츠 활동도 포함된다. 스포츠의 어원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어로는 'Disport'라 하여 '유쾌하게 돌아다니다' 혹은 '기분전환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는 '체육'과 혼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체육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를,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볼 때 과거 스포츠는 전문 체육인이 참여하는 경쟁적인 활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비경쟁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면서 레저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레저와 스포츠는 모두 여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가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인 행동에 포함된다. 이상의 개념을 토대로 하

여 레저와 스포츠의 범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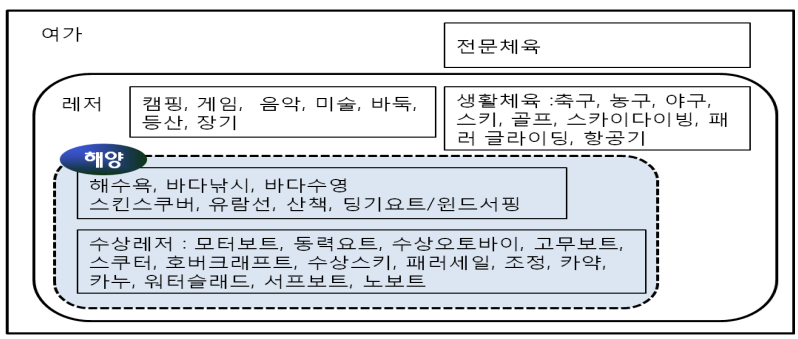


자료: 김홍백·이진한, 『레저스포츠 총론』, 형설출판사, 2011.

| 그림 2-1 | 스포츠 관광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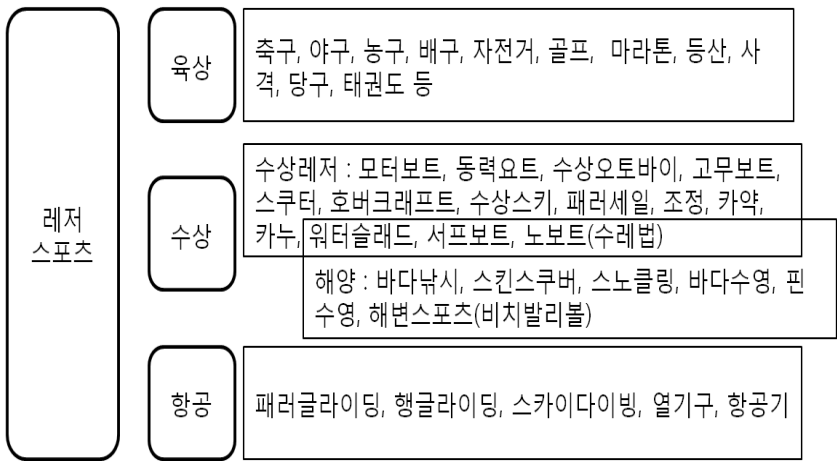
(2)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

레저와 스포츠의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를 해양공간에서 진행되는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레저와 스포츠의 영역 중에서 해양공간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해양레저스포츠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때 운동선수들이 참여하는 전문체육의 영역은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2 | 레저스포츠의 영역 분류

한편 레저스포츠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육상, 수상, 항공으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해양레저스포츠는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에 포함되므로 수상레저활동 영역 속에서 분류하도록 한다.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정의에 따라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15가지, 아래 그림 참조)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단,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활동에는 무동력 수상레저활동과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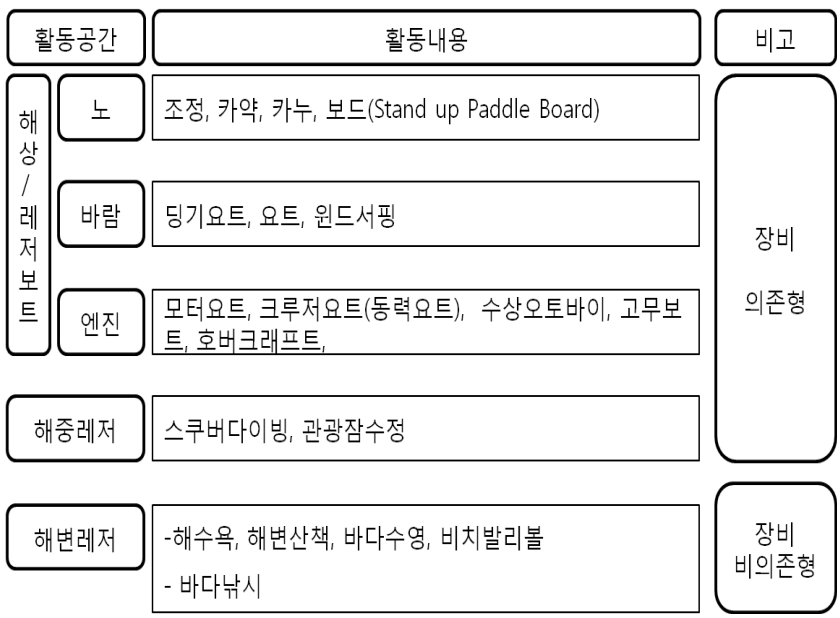


| 그림 2-3 | 레저스포츠의 공간적 분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에는 무동력 및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레저스포츠 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해양공간에서의 레저활동을 레저보트의 동력원을 기준으로 노, 바람(풍력), 엔진으로 분류하면 노에는 조정, 카누, 카약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드에 서서 노를 젓는 레저활동(Stand Up Paddle Board)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활동 또한 해양레저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바람을 이용하는 활동에는 딩기요트와 요트(세일링 요트), 윈드서핑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엔진을 이용하는 활동에는 모터요트, 크루저요트(동력요트, 카타마란),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레프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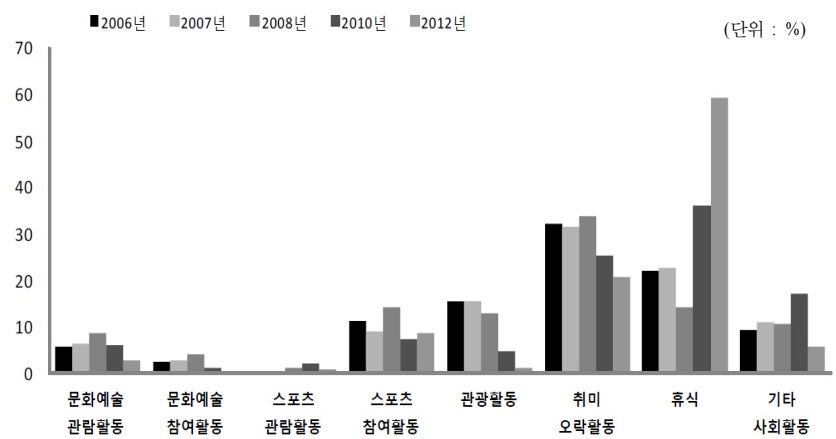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중레저활동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해양레저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스킨스쿠버 활동이 해양레저활동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상과 해중레저와 같이 장비에 의존하는 레저활동 외에도 해수욕/해변산책, 바다수영, 비치발리볼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레저활동도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국내 레저 및 스포츠 활동 유형, 수상레저활동 유형을 토대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그림 2-4 |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

2) 국내레저스포츠 환경

최근 우리나라는 여가시간 증대와 더불어 소비문화의 트렌드가 개인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레저스포츠 환경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레저스포츠환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휴식활동에 속하는 산책, TV/비디오/라디오 시청, 음악감상, 낮잠, 신문/잡지보기 등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비율 중에서 휴식활동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미오락 활동이 20.9%로 나타났다. 스포츠참여활동은 2010년의 7.3%보다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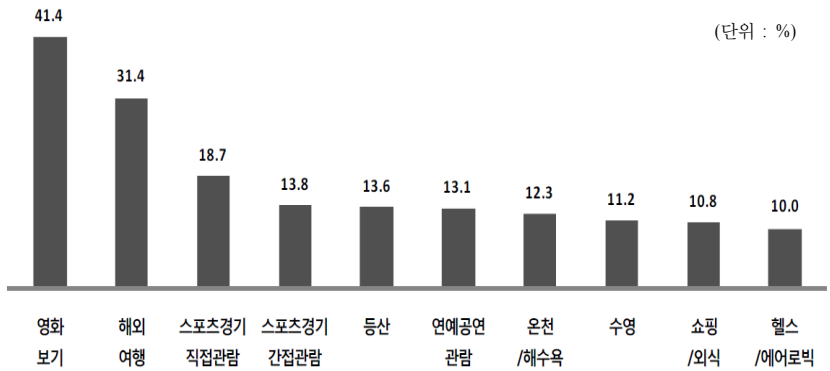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12.

| 그림 2-5 |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율 추이

한편,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화보기가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해외여행(31.4%), 스포츠경기 직접관람(18.7%), 스포츠경기 간접관람(13.8%), 등산(13.6%)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화/여행 이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수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경우, 스포츠분야의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12.

| 그림 2-6 |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

레저스포츠 활동참여 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실태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선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스포츠활동과 기타 스포츠활동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활동에서는 참여기간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반면, 기타 스포츠활동에서는 걷기, 등산, 낚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스포츠활동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에 따르면 2012년에는 수영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등산(8.2%), 헬스(6.0%), 골프(5.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선호도는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다.

| 표 2-2 |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단위 : %)

참여정도	참여 종목			
	스포츠활동		기타 스포츠활동	
한 달에 2~3번	축구	10.8	등산	43.8
	농구	6.6	걷기	15.8
	자전거(사이클)	4.5	낚시	6.3
	배드민턴	4.4		
	골프	3.1		
주 1회	축구	17.8	등산	33.5
	자전거(사이클)	5.0	걷기	20.1
	배드민턴	4.2	낚시	0.5
	농구	3.3		
	골프	3.0		
주 2회	축구	9.9	걷기	34.9
	보디빌딩(헬스)	7.9	등산	9.2
	자전거(사이클)	6.1	낚시	0.4
	배드민턴	5.1		
	수영	4.8		
주 3회	보디빌딩(헬스)	18.7	걷기	34.2
	수영	10.5	등산	5.0
	요가	6.7	낚시	0.1
	배드민턴	4.2		
	자전거(사이클)	4.0		
주 4회	보디빌딩(헬스)	27.9	걷기	36.7
	수영	6.9	등산	4.7
	자전거(사이클)	4.0	낚시	0.3
	배드민턴	3.8		
	줄넘기/훌라후프	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2012.12.

한편 스포츠활동 참여희망 종목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는 11위 내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지도와 선

호도가 타 레저스포츠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 것과 함께 친수문화가 발달되지 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레저스포츠의 육성을 위해서는 친수문화의 확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2-3 | 스포츠활동 참여희망 사항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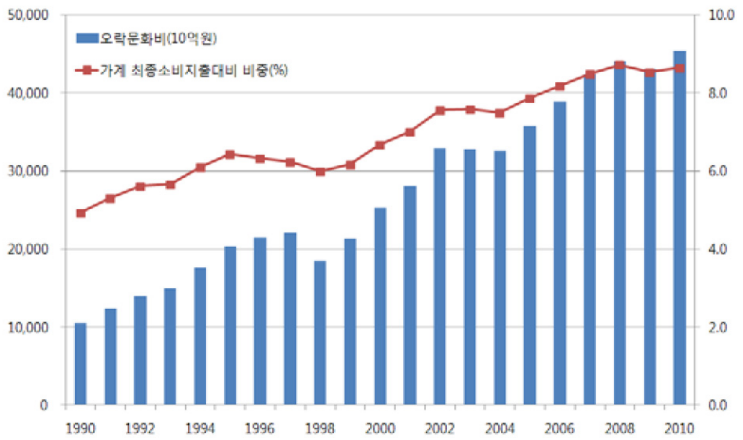
종목 / 연도	사례수	테니스	수영	볼링	에어로빅 미용체조	골프	육상	축구	등산	스쿼시	헬스	요가
1994	6,000	20.0	20.4	8.6	5.3	2.7	4.2	3.8	5.2	-	-	-
1997	3,211	7.9	21.3	4.4	4.5	7.1	4.2	3.8	5.2	-	-	-
2000	3,894	2.5	22.5	2.6	-	6.1	1.7	2.8	4.8	-	-	-
2003	5,034	4.9	17.0	1.1	1.0	8.0	6.8	2.5	9.0	5.7	4.3	-
2006	8,944	5.1	15.6	-	2.3	11.6	2.5	3.3	3.9	3.6	2.3	7.2
2008	10,000	3.7	17.8	0.8	2.2	7.2	0.6	3.4	5.9	2.0	6.0	6.5
2010	9,000	2.9	17.6	1.1	1.9	6.5	0.5	3.5	8.3	1.6	6.4	7.8
2012	9,000	2.9	15.6	1.5	1.9	5.8	0.4	2.6	8.2	1.7	6.0	7.4

주: 향후 참여 희망 운동종목은 상위 11순위까지 나열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2012.12.

2. 해양레저 및 관련 정책 분석

1)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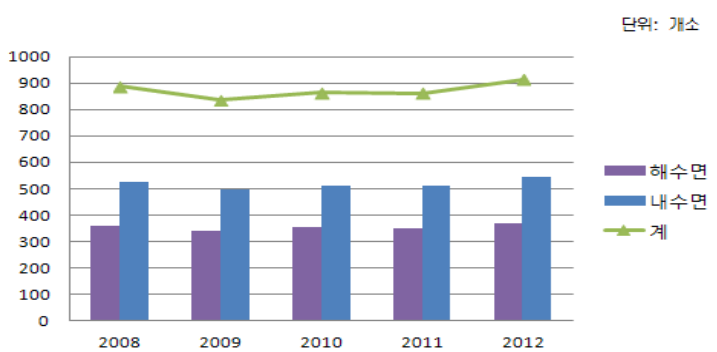
우리나라 레저시장 규모는 2001년 28조 원에서 2010년 45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레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최종소비지출 대비 레저비 비중은 1990년 4.9%에서 2010년 8.6%로, 1인당 레저비 지출규모도 1990년 24만원에서 2010년 9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2011.

| 그림 2-7 | 가계 최종소비지출 대비 레저비 비중

한편, 레저스포츠 활동 중 해양레저활동과 관련된 시장규모나 관련 업체에 대한 동향은 별도의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상레저사업장의 운영현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914개소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이는 2011년보다 52개소 늘어난 수치이다.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3.

| 그림 2-8 | 수상레저사업장 변화 추이

국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사업구역에 따라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구분된다. 내수면 사업장은 대부분 래프팅과 수상스키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수면 사업장은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등 견인형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룬다. 한편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전체 수상레저사업장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수면 사업장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포함한 수상레저활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2-4 | 연도별 수상레저 활동자 수

(단위 : 만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 이용	426	417	477	345
개인활동	275	142	77	61
계	701	559	554	406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3.

2) 관련정책분석

(1) 해양수산부

2013년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은 2003년 수립된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5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03. 12)

구분		주요 내용
계획의 목표		• 수요자인 국민은 바다에 친숙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기회를 제공받아 삶의 질 향상 • 공급자인 지역주민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연안으로 조성되어 소득창출 • 정부는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지원·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관광을 해양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육성
추진전략		• 연안 친수·문화공간의 조성 • 해상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 어촌관광의 진흥 •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추진과제	연안 친수·문화공간의 조성	• 해수욕장의 자연경관 보전과 해양레저·스포츠공간 조성 •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 해양문화인프라 시설 건립을 통한 해양문화공간 조성 • 유인등대 개방
	어촌관광의 진흥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관광부문 투자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 어촌체험마을 조성 • 어촌지역의 난개발방지 • 어촌지역주민 관광마인드 조성과 운영능력배양 • 다기능어항 개발촉진
	해상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 다도해지역의 해상교통 확충 • 크루즈항로개발, 전용부두/터미널 확충 • 해상호텔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술과 법·제도의 정비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 레저선박 등록제도 도입과 레저·스포츠 대중화 기반조성 • 불법양식장 정리, 해중경관지구 지정/육성 • 레저선박 안전사고 구조체계 확립
	관련 법·제도개선	•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한 해양관광불편해소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2003.12. 인용 재작성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서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은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이라는 정책과제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공간 조성, 레저선박 등록제도 도입과 레저·스포츠 대중화 기반조성, 불법양식장 정리, 해중경관지구 지정/육성, 레저선박 안전사고 구조체계 확립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2003년 이후에는 연차별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되었다. 2007년 수립된 실천계획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의 추진과제는 레저선박 대중화(크루즈

세일링요트 국산화개발), 낚시종합 발전계획 추진이,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마리나개발계획의 수립이 제시되었다.

| 표 2-6 | 해양관광진흥 세부 실천계획(2007)

구분		주요 사업
추진과제	연안 친수·문화공간의 조성	• 연안친수공간 정비확충 : 해안접근로 정비, 친수연안조성 • 생태·문화관광의 촉진 : 갯벌탐방로 설치, 갯벌방문센터 건립 • 해양문화체험공간 조성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유인등대 개방/정비 • 친수항만조성 : 해양공원시설, 항만 친수공원 조성
	어촌관광의 진흥	• 어촌관광거점 육성 : 어촌체험마을 조성 • 어촌종합개발사업 관광부문 투자 강화 : 어촌관광기반시설 조성,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어촌관광단지 조성, 다기능어항 조성 • 내수면 관광기반 조성 : 어류생태관 건립,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 설치 • 어촌관광 특산물 개발
	해상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 여객선 수송시설 현대화 : 국고 여객선 대체건조, 연안 여객터미널 신축/유지보수 • 해양크루즈관광 육성 : 크루즈전용부두 건설, 크루즈선사 육성/지원, 국제협력강화 • 해상호텔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술과 법·제도의 정비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 레저선박 대중화 : 크루즈 세일링 요트 국산화개발 • 낚시종합 벌전계획 추진
	관련 법·제도 개선	• 마리나 개발계획 추진,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해양관광 포탈시스템 구축

자료 : 해양수산부, 『2007 해양관광진흥 세부 실천계획(안)』, 2007. 인용 재작성

이상의 연차계획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부문과 관련된 기반시설 조성이나 체험행사 등은 추진되었으나, 레저선박의 대중화를 위한 국산화 장비개발,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해중경관지구 지정 등은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토해양부가 출범하면서 2011년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의 추진과제로는 '선진형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이 제시되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교육·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레저스포츠 센터 건립,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 지원, 마리나 시설 조성, 마리나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 표 2-7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1. 11)

구분		주요 내용
계획의 목표		• 행정계획으로서 국가 해양관광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새로운 해양정책의 비전 요구 • 해양관광 자원 개발, 해양문화관광 진흥,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등을 포괄한 해양관광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 21세기 신성장동력이자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각광받는 해양관광에 대한 새로운 국가 정책의 마련
추진전략		• 선진형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 • 연안공간을 활용한 보급형 휴양시설 개발 • 다양한 해양생태·문화자원의 이용·개발 • 해양관광의 활성화 • 해양관광 지원체제 강화
추진과제	선진형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수욕장의 이용·개발 촉진 • 해중관광 진흥
	연안공간을 활용한 보급형 휴양시설 개발	• 해양 누리길 조성 • 무인도서 이용·개발 • 연안유휴지 활용한 해양관광지 조성 • 친수연안 조성
	다양한 해양생태·문화자원의 이용·개발	• 해양문화콘텐츠의 다양화 • 해양테마공간조성·개발 • 해양생태관광 진흥
	해양관광의 활성화	• 해양관광 정보 및 통계 시스템 구축 •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강화 • 다양한 재원확보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 투자비 총괄 및 파급효과 분석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2011.11. 인용 재작성

국토해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은 지자체의 바다낚시공원 조성이나 산책로, 계류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마리나산업육성대책(2011. 12) 이후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방안이나 해양레저 체험인구 확산을 위한 체험행사 이벤트 등도 추진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가. 스포츠 비전 2018

관광과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발표한 '스포츠 비전 2018'을 통하여 향후 5년('13~'17)간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 표 2-8 | 스포츠 비전 2018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계획의 목표		•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 • 스포츠참여자, 스포츠산업 종사자, 스포츠인 등 국민과 비전을 공유 •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을 2013년 43.3%에서 2017년까지 향상 •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2013년 37조에서 2017년 53조로 향상 • 스포츠산업 일자리 2013년 23만에서 2017년 27만으로 향상
추진전략		• 손에 닿는 스포츠 •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추진과제	손에 닿는 스포츠	• 스포츠 참여거점 마련 • 스포츠 참여시설 확충 • 스포츠 정보제공 확대 • 스포츠 참여유인 확대 • 지도자 일자리창출 및 전문성 제고 • 대상맞춤형 지원 확대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 선수 저변 확대 • 선수 인권, 복지 강화 • 스포츠과학 기반 강화 •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및 진출 지원 • 스포츠 국제협력 선도 • 국제대회 효과성 제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 스포츠 융복합 시장 창출 • 스포츠산업 수요 창출 • 스포츠 창업, 일자리 지원 •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 스포츠 관광 자원화 •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전 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8.22.

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지향적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비전과 권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계획으로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미래지향적 관광개발 패러다임은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관광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2-9 |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전략별 추진전략

추진전략	내용
[전략 1]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광개발 체계 개선 • 체계적 관광자원 개발·운영을 위한 관련제도의 실효성 확보 → 리모델링 중심의 관광개발, 민자유치활성화, 관광R&D 구축 등
[전략 2]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미래관광 개발을 선도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환경 구축 • 관광공간, 관광콘텐츠 확대를 통한 관광개발 영역 확장 → 해양관광 활성화, 복·융합관광개발 확대, 산업관광 활성화 등
[전략 3] 문화를 통한 품격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고품격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국문화 명품화 및 세계화 •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지역 창출 →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활성화, 문화관광마을 조성, 한류관광 활성화 등
[전략 4]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여가문화 정착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소득수준, 연령별특성, 사회적계층을 고려한 관광개발 유도 → 숙박시설 다양화(고택·종택, 호스텔 등), 취약계층 관광향유 지원 등
[전략 5]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확산	• 자연자원에 기반한 녹색관광지역 확충 및 생태적 지속성 제고 • 관광자원의 친환경적 관리운영 방식 활성화 → 저탄소 녹색관광 모델선정·개발, 생태관광 거점지역 육성
[전략 6]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남북한 관광개발 기반 확충 •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관광교류 확대로 상생과 공동발전 도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1.12.

다.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에 국민체육진흥기금(50억 원)을 활용하여 레저스포츠시설 개별 종목시설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 표 2-10 |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의 목표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기반구축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 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지원규모		• 총 사업규모 : 국민체육진흥기금(50억 원) • 지원한도 : 레저스포츠시설 개별 종목시설 당(5억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방비 50% 이상 매칭 투자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안내, 공고	• 문화부 → 광역지자체[경유]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기초지자체에 사업신청 요청
	② 사업대상 시설 추천 및 접수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경유] → 문화부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한 후 신청
	③ 심사 및 결과통보 (심사위원회 개최 등)	• 문화부 → 광역지자체[경유] → 기초지자체 • 현장실사(필요시) 및 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
	④ 기금지원감독·정산 (공단 ↔ 선정 기초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사업 기금지원, 사업 정상추진 감독, 정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2013.

라.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지역별로 특성화된 레저스포츠 대회 및 그린레저스포츠교육 교실을 통해 레저스포츠 종목 육성 및 보급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레저스포츠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표 2-11 | 레저스포츠시설 육성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사업 내용	지원 종목	
지역특성화 레저스포츠 대회	• 레저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대회 • 자연환경활용 레저스포츠대회	육상형	인공암벽등반,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자동차경주, 오토바이경주, 사이클링, 스노보드, 빙벽타기, 윈드스키, 인라인스케이팅, 스케이트보드, BMX, 스노우바이크, 스노우스쿠터, 휠맨, 마운틴보드, 스트리트보드, 모터보드 등
		수상형	수상스키, 윈드서핑, 제트스키, 스킨스쿠버, 요트, 낚시, 래프팅, 서핑, 카약, 카누, 절벽다이빙, 아이스카누, 뗏목체험, 스노쿨링, 웨이크보드 등
		항공형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스카이서핑 등
그린레저 스포츠교실 교육	• 자연환경을 활용한 무동력레저스포츠 교실 • 레저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교실	육상형	인공암벽등반,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사이클링, 윈드스키, 인라인스케이팅, 스케이트보드, BMX, 마운틴보드, 스트리트보드 등
		수상형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낚시, 래프팅, 서핑, 카약, 카누, 절벽다이빙, 아이스카누, 뗏목체험, 스노쿨링, 웨이크보드 등
		항공형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스카이서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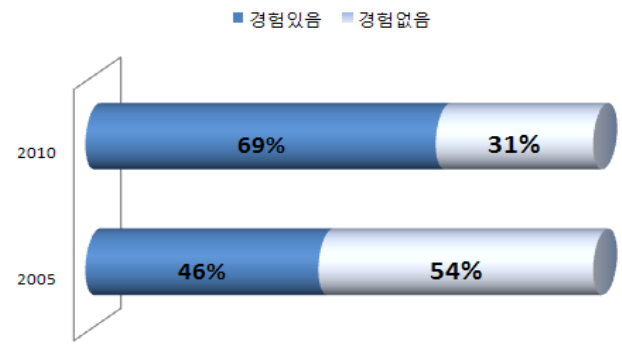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2013.

3. 해양레저활동 실태분석

1) 활동실태

국내에는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동향이나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및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해양레저와 관련된 활동실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된 해양관광실태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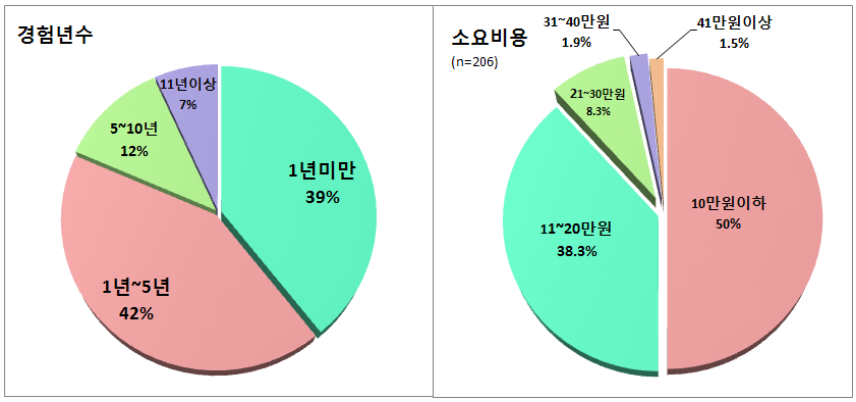
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양관광활동 참여율은 2005년보다 다소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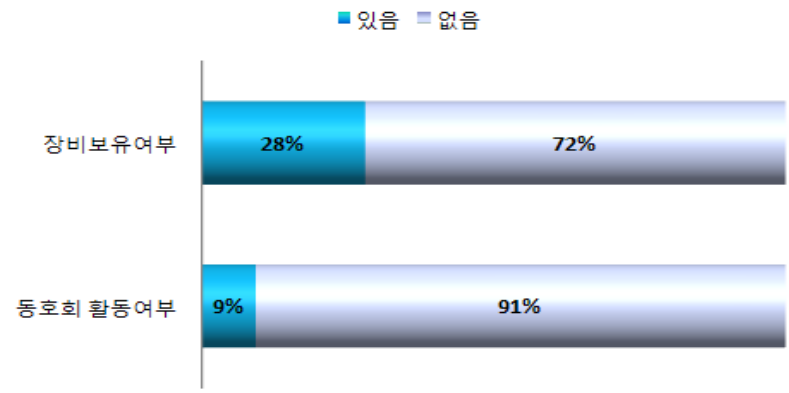
| 그림 2-9 | 해양관광활동 참여율 변화

이와 더불어 동 조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경험자 206명의 경험년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39%, '1~5년'이 42%, '5~10년'이 12%, '11년 이상'이 7%로 전체의 81%가 5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회 평균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10만원 이하'가 50%로 가장 많았고, '11~20만원'이 38.3%로 전체의 88.3%가 20만원 내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레저스포츠 경험자 206명 중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8%,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는 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대여사업 및 해양레저스포츠제전 등을 활발히 유치하여 동호회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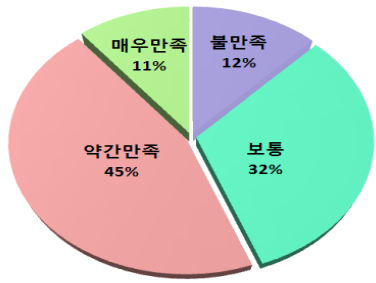
| 그림 2-10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경험년수 및 소요비용



자료: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2. 재인용

| 그림 2-11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장비보유 및 동호회 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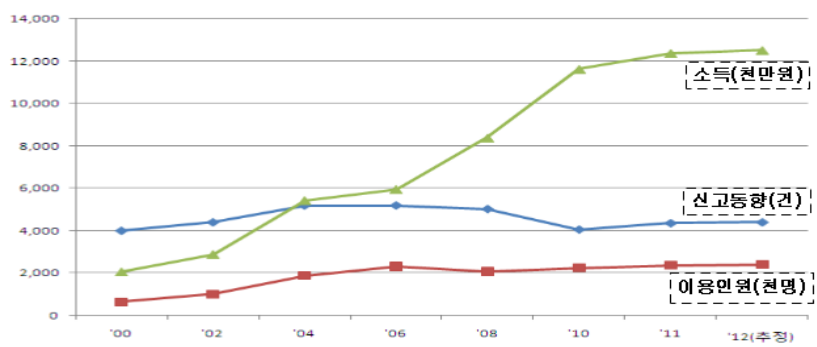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해 '약간만족' 한다는 응답이 45%, '매우만족' 한다는 응답이 11%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6%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2%임에 반해, '불만족'은 전체의 12%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2. 재인용

| 그림 2-12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만족도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는 별도로 국내 해양레저활동 인구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낚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낚시어선을 활용한 바다낚시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다낚시객의 증가에 따라 바다낚시선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낚시어선, 2012년 상반기 497억의 수입 올려' (2012.8.17)

| 그림 2-13 | 낚시어선 이용인원 및 운영소득

1)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전 바다낚시 관련 정책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로 추진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해양레저스포츠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음.

2012년 상반기 낚시어선 이용객은 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으나, 이용수입은 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낚시어선업은 국민 소득의 증대, 주 5일제 확대 등 여가 기회의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어촌의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 표 2-12 | 연도별 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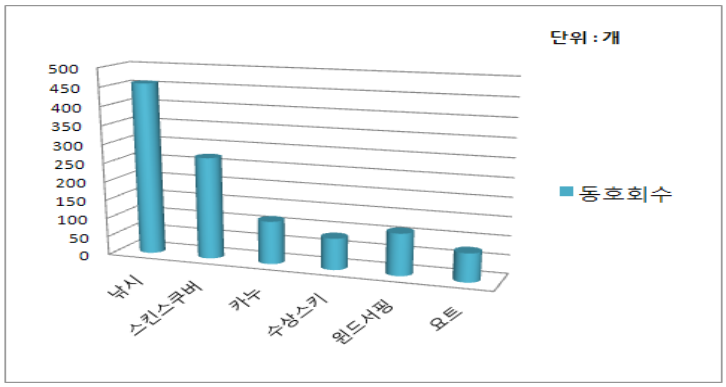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1,442,209	1,884,252	2,023,826	2,305,937	1,993,277	2,077,781	2,403,637	2,247,512	2,372,531	951,689
부산	45,888	74,501	79,546	72,599	77,221	92,906	106,588	169,537	132,075	67,644
인천	76,088	81,379	77,265	51,209	55,678	137,318	146,714	134,020	139,456	65,345
울산	5,891	20,086	11,958	15,747	10,408	14,823	26,930	24,671	22,779	11,882
경기	57,256	65,731	52,613	66,498	67,782	50,251	88,450	52,452	76,170	23,674
강원	99,870	102,227	87,630	99,605	96,717	114,987	95,131	156,103	104,024	47,988
충남	385,212	451,144	388,414	647,737	380,743	329,101	389,674	426,557	531,241	166,219
전북	55,840	83,765	96,034	83,401	80,238	72,736	119,000	169,985	97,505	31,696
전남	90,448	346,756	455,504	778,061	657,453	658,602	726,657	415,268	574,669	198,916
경북	39,409	64,922	52,780	37,263	119,693	97,793	177,271	154,110	106,052	25,534
경남	499,604	505,281	630,475	369,672	376,838	398,701	391,810	329,449	394,360	225,123
제주	86,703	88,460	91,607	84,145	70,506	110,563	135,412	215,360	194,200	87,66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낚시어선, 2012년 상반기 497억의 수입 올려'(2012.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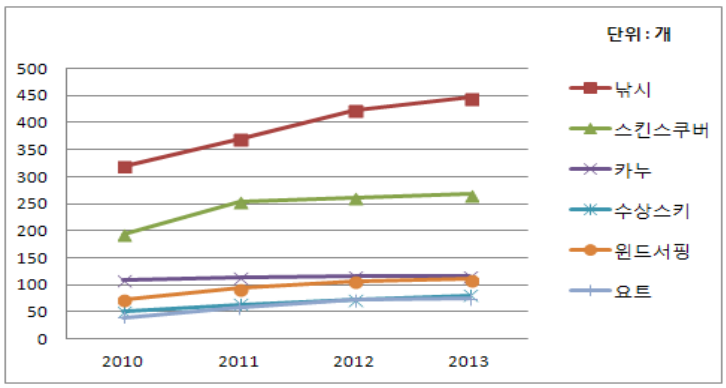
2) 동호회 현황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동호회 현황은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수와 동호인 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국내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개 종목의 동호회 수는 89,499개이다(2013년 12월 기준). 이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종목인 낚시, 스킨스쿠버, 카누,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의 동호회 수는 1,117개로, 이는 전체 동호회 수의 1.25%에 해당한다.



자료: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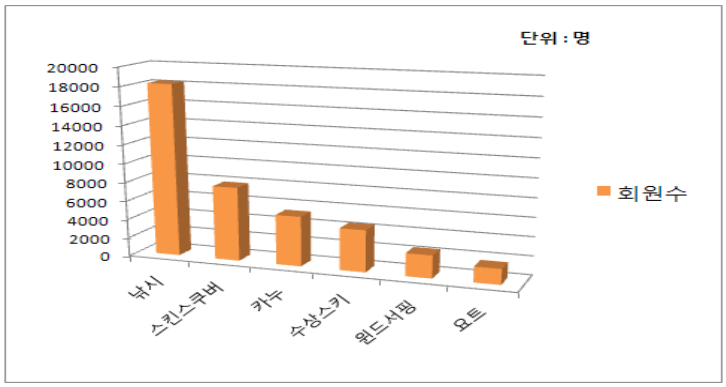
| 그림 2-14 | 2013년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별 동호인 수



자료: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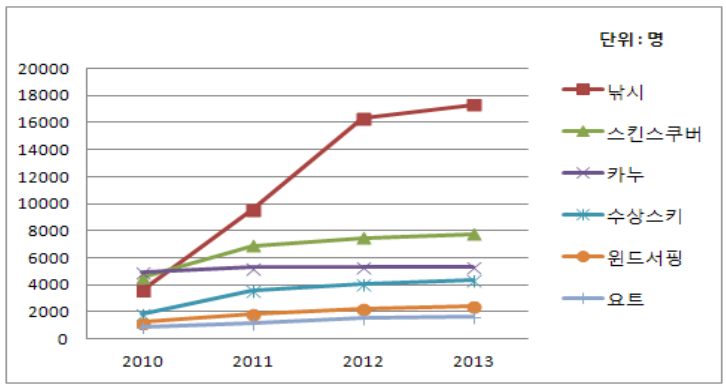
| 그림 2-15 |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 수 변화추이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국내 생활체육동호회 회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전체 117개 종목의 회원수는 4백만 명이다. 이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종목인 낚시, 스킨스쿠버, 카누,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의 회원수는 4만 명으로, 이는 전체 동호인 수의 1%에 해당한다.



자료: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 그림 2-16 | 2013년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별 동호인 수



자료: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 그림 2-17 |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 수 변화추이

3)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현황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자격증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지도자 1, 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1, 2, 3급으로 구분된다. 종목으로는 수상스키, 수중(스킨스쿠버), 요트, 윈드서핑, 조정, 카누 등이 있다. 민간자격증은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한국아쿠아운동협회, 대한수중협회 등 18개 기관에서 스킨스쿠버지도자, 수중안전지도자, 수상인명구조요원, 윈드서핑지도자 등 총 34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수상인명구조 19개, 수중 6개, 래프팅 3개, 레저스포츠 2개, 윈드서핑과 낚시에 각각 1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 표 2-13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 종류

구분	자격증 명칭	발급기관	종목
국가 자격	1급 경기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수상스키, 수중, 요트, 조정, 카누
	2급 경기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수상스키, 수중, 요트, 윈드서핑, 조정, 카누
	1급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수중
	2급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수중
	3급 생활체육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수중
민간 자격	래프팅가이드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윈드서핑
	낚시지도자	낚시전국종목별연합회	낚시
	딥워터 전문가	한국아쿠아운동협회	수중
	레저관리사 1급	한국스포츠인재개발원	레저스포츠
	래프팅가이드	대한래프팅협회	수상스키
	래프팅가이드강사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수상스키
	수상레저지도자	한국스포츠인재개발원	레저스포츠
	수상스키심판	대한수상스키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스키지도자	대한수상스키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안전지도자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안전지도자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 강사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 지도관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강사	대한수중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강사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수상인명구조

| 표 2-13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자격증 종류(계속)

구분	자격증 명칭	발급기관	종목
민간 자격	수상인명구조강사 트레이너	대한수중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사	한국생활안전관리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요원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원	국제다이빙교육자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원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수상인명구조
	수상인명구조원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수상인명구조
	수중운동지도자	한국아쿠아운동협회	수중
	스쿠버다이버	한국잠수협회	수중
	스쿠버다이버	스쿠버드림	수중
	스쿠버다이빙강사	대한수중협회	레프팅
	스쿠버다이빙지도자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수중
	스쿠버잠수지도관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레프팅
	스킨스쿠버·잠수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연합회	수중
	스킨스쿠버지도자	스킨스쿠버전국종목별연합회	레프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체육지도자연수원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관련 국가자격인 1, 2급 경기지도자는 수상스키, 수중, 요트, 조정, 카누 5종목이 있으며, 한 해에 1급 70명, 2급 500명 정도를 필기, 실기, 연수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1, 2, 3급은 윈드서핑, 수상스키, 수중, 요트, 조정, 카누 6개 종목에 대해 한 해 총 8,87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 표 2-14 |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국가자격증 연수기관 및 선발인원

자격구분		연수기관	선발인원
1급 경기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70명 내외
2급 경기지도자	1차	한국체육대, 충남대, 조선대, 동아대, 신라대, 국기원	720명 내외
	2차	한국체육대, 국기원	500명 내외
1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체육과학연구원	60명 내외
	특별과정	체육과학연구원	10명 내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	60명 내외
	자격부여 추가취득	체육과학연구원	190명 내외
	특별과정	체육과학연구원, 원광대	50명 내외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특별과정	29개 연수원	5,500명 내외
	자격부여 추가취득	29개 연수원	3,000명 내외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체육지도자연수원

4)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등을 대행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수상레저기구,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 활동 관련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총 3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

-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 조종면허 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 개발
-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의 대행
-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
- 교육 및 관련 장비, 교재의 개발
-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는 업무
- 수상레저관련 보험, 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네트워크 구성 운영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대행

(2)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2012년 3월 설립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양산업관련 정책의 기획, 마리나 시설 건립 운영에의 기여, 해양레포츠 장비 및 서비스 기업 창업 선도,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발전 대안 탐색 연구 및 정기포럼 개최
- 해양레저스포츠 포럼지 발간 및 관련정보 제공
- 해양레저스포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체 실무자 전문화 연수 사업
- 관련학과 대학생 산업현장 참여 지원 활동
- 해양레저스포츠관련 국제회의 및 축제 유치

(3)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재단은 국민의 해양의식을 일깨워 해양국가로서 산업과 기술 등 우리의 해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해상왕 장보고기념 사업회와의 유사 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와 관광 부분에 있어서 삶 속의 바다, 관광산업과 해양 해양레저와 스포츠, 전국 해수욕장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 가보고 싶은 섬, 마리나항만 현황, 등대와 바다, 해안누리길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www.changpogo.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

-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 해양관련 과학기술 진흥 및 학술연구사업
- 해양스포츠 레저관광 산업육성
-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 사업
- 해양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한국마리나산업협회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국내 마리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상, 해양레포츠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산업 기반과 시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

-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 마리나 포털사이트 구축
-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보급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구축
- 마리나서비스업 직종개발 및 직업교육원 운영
- 관광 클러스터 개발
- 중산층 진입을 위한 회원권 제도 도입지원

(5) 대한요트협회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관련 단체를 통합 대표하며 요트 경기의 보급과 요트 경기의 발전을 꾀하여 스포츠정신을 배양하고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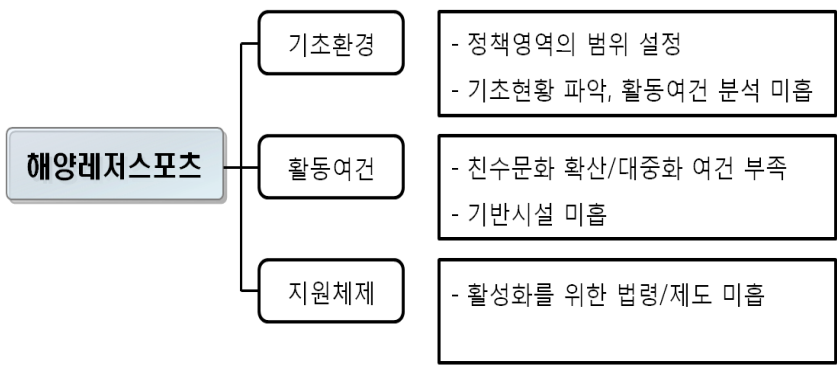
주요사업내용

-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며,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요트연맹에 가입
- 한국의 요트발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결정
- 요트경기에 관한 대한체육회의 자문,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 산하 가맹단체와 지부의 육성지도 및 관리 감독
- 국제적인 요트경기대회 및 회의 참가와 교류
- 전국 규모의 각종 요트경기대회 개최

4. 시사점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라 해양레저분야 정책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정과제에 마리나와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여가 트렌드가 보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정책은 마리나시설 개발, 바다낚시 공간조성, 요트대회 개최나 레저체험행사 지원 등의 형태로 해양수산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추진되어 왔지만, 사업범위나 기본 현황, 근거 법령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파악도 해양공간이나 해양을 매개로 하는 참여활동은 기초적인 현황이나 문제점 등도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 그림 2-18 | 해양레저스포츠 여건 종합분석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스포츠의 정책영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기존의 해양레저나 스포츠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나 바다낚시나 스킨스쿠버, 무동력 레저기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레저기구를 활용하지 않고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주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기초통계 및 활동여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여가나 생활체육 관련 실태조사로는 해양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과거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해양관광실태조사에서도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는 불편사항 정도만이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활동인구나 세부 활동내용 등의 기초적 현황에 대한 조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마련도 요구된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에 '해양레저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이 명시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령도 아직 완비되지 않아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 3 장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조사

레저문화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단순 휴식에서 벗어나 참여형 레저활동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참여 활동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비하여 아직까지 대중화가 미흡하다. 또한 해양레저인구의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체험행사들은 친수문화의 보급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단순 체험형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장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내사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해양레저가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국내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1) 해양수산부의 해양스포츠제전

(1) 개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2013년 8회째 개최되었으며 해양스포츠경기와 체험행사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양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양스포츠제전은 전문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와 일반인들이 생활 스포츠를 통하여 바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해양스포츠제전의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2013년 8월 15일(목) ~ 8월 18일(일)

○ 장소 : 송도해수욕장 일원

○ 참석 규모 : 55,000여 명(임원 및 선수 5,000명)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부산광역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후원 : 부산광역시

자료: www.전국해양스포츠제전.kr

| 그림 3-1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경기종목

(2) 주요 행사종목

해양스포츠제전의 정식 종목은 요트, 비치발리볼, 핀수영, 카누, 트라이애슬론의 5개이며, 번외 경기로는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등의 경기가 진행된다.

| 표 3-1 | 해양스포츠제전 경기종목 및 주요내용

종목	종별	장 소	경기기간	선수(예상)
요트	정식	수영만 요트 경기장	8.15~8.18(4일)	종목 : 10종목 37부
				참가 : 딩기요트 200척
				시설 : 계류장, 계양대, 세척실

| 표 3-1 | 해양스포츠제전 경기종목 및 주요내용(계속)

종목	종별	장 소	경기기간	선수(예상)
비치발리볼	정식	송도	8.15~8.17(3일)	종목 : 1종목 2부
				참가 : 단체 20팀(남10, 여10)
				시설 : 2코트(8×16×0.4/코트)
핀수영	정식	송도	8.15(1일)	종목 : 2종목 24부
				참가 : 시도대항전, 클럽대항전
				시설 : 코스(3km)
카누	정식	송도	8.17~8.18(2일)	종목 : 3종목 24부
				시설 : 코스(5레인)
				체험행사 진행
트라이애슬론	정식	송도	8.17~8.18(2일)	종목 : 6종목 27부
				시설 : 바꿈터, 부표(750m)
				코스 : 2종
바다수영	번외	송도	8.18(1일)	종목 : 2종목 11부
				시설 : 대형부표(3), 닻10
드래곤보트	번외	송도	8.16(1일)	종목 : 1종목 8부
				참가 : 60~65개팀(팀당12명)
				시설 : 계류장
고무보트	번외	송도	8.17(1일)	방법 : 200m 직선 달리기
				종목 : 1종목 8부
				참가 : 75~80개 팀(팀당10명)
				시설 : 계류장

자료: www.전국해양스포츠제전.kr

2) 해양레저 이벤트 행사

최근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에서는 요트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중 총 24개의 요트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지역별 윈드서핑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 Ⅱ 3-2 | 국내요트대회 현황

구분	대회명	개요	
1	해양경찰청배 전국요트대회	기간	2013.3.28~2013.4.2
		장소	거제도(지세포)
		종목	옵티, 레이저, 레이저 레디얼, 레이저4.7, 420, 470, 호비16, 미스트랄, RS:X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2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기간	2013.4.18~2013.4.22
		장소	창원시
		종목	옵티, 레이저, 레이저 레디얼, 레이저4.7, 420, 470, 호비16, 미스트랄, RS:X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3	고성군수배 윈드서핑대회	기간	2013.4.20~2013.4.22
		장소	고성군(당항포)
		종목	윈드서핑, 카이트
		주관단체	한국윈드 & 카이트 협회
4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기간	2013.4.23~2013.4.25
		장소	여수-거제-부산
		종목	크루즈(ORC, POEN)
		주관단체	부산요트협회
5	부산수퍼컵 국제요트대회	기간	2013.4.26~2013.5.28
		장소	부산시(수영만)
		종목	인쇼어레이스; 7m(23ft)이상 모노헐 킬보트
		주관단체	부산요트협회
6	아리랑 레이스	기간	2013.5.1~2013.5.5
		장소	부산-후쿠오카
		종목	크루저(모노헐 킬보드 ; IRC, ORC)
		주관단체	부산요트협회
7	한국윈드서핑 협회장배	기간	2013.5.2~2013.5.5
		장소	울산시(진하)
		종목	윈드서핑 & 카이트
		주관단체	한국윈드&카이트 협회
8	울산진하 PWA 세계 윈드서핑대회	기간	2013.5.3~2013.5.9
		장소	울산시(진하)
		종목	윈드서핑 & 카이트
		주관단체	한국윈드&카이트 협회
9	해양수산부장관배 아시아국제 및 전국요트대회	기간	2013.5.31~2013.6.9
		장소	전남
		종목	옵티, 레이저, 레이저 레디얼, 레이저4.7, 420, 미스트랄, RS:X, 테크노293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 Ⅲ 3-2 | 국내요트대회 현황(계속)

구분	대회명	개요	
10	코리아컵 & 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기간	2013.5.16~2013.5.22
		장소	울진군
		종목	모노헐킬보트 Offshore: 9m이상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11	소년체전(제42회)	기간	2013.5.25~2013.5.27
		장소	대구시
		종목	옵티미스트(중등; 남, 녀, 단체)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12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기간	2013.5.28~2013.6.2
		장소	경기도
		종목	11m(36ft) 매치레이스
		주관단체	경기도요트협회
13	세계여자 매치레이스	기간	2013.6.4~2013.6.19
		장소	부산시(동백섬)
		종목	여자 매치레이스
		주관단체	부산요트협회
14	한국레이저요트 협회장배 선수권 대회	기간	2013.6.14~2013.6.16
		장소	강원도(수산항)
		종목	레이저(100여척)
		주관단체	한국레이저협회
15	한국 J24 요트선수권대회	기간	2013.7.15~2013.7.7
		장소	경남(고성)
		종목	J24(40척)
		주관단체	한국 J24협회
16	부관친선 요트대회	기간	2013.8.24~2013.8.26
		장소	부산시
		종목	7m(23ft)이상 모노헐 킬보드
		주관단체	부산요트협회
17	아시아 요트선수권대회	기간	2013.9.5~2013.9.14
		장소	인천시(왕산)
		종목	옵티, 레이저, 레이저 레디얼, 미스트랄, RS:X, 420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18	전국체전(제94회)	기간	2013.9.27~2013.9.29
		장소	경남(진해)
		종목	레이저, 420, 470, 호비16, RS:X
		주관단체	대한요트협회

| 표 3-2 | 국내요트대회 현황(계속)

구분	대회명	개요	
19	경기도협회장배 겸 한일친선대회	기간	2013.10.26~2013.10.27
		장소	평택시
		종목	옵티, 레이저, 420, 피코
		주관단체	경기도요트협회
20	한국레이저협회 전국선수권대회	기간	2013.10
		장소	부산(수영만)
		종목	레이저(약100척)
		주관단체	한국레이저협회
21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기간	2013.11.6~2013.11.10
		장소	경남(통영)
		종목	크루저 국제대회, 옵티
		주관단체	경남요트협회

자료: 한국마리나산업협회, 『국내마리나 및 요트산업 통계지표 개발』, 2013.7. 재구성

2. 주요 국가별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1) 미국

(1)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위

미국은 1960년부터 야외 레크리에이션 자원조사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ORRRC)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민 레크리에이션조사(National Recreation Survey; NRS)를 실시해왔다. NRS는 1960년 최초로 시행된 이래 1965년, 1970년, 1972년, 1977년, 1982~1983년, 1994~1995년, 1999~2000년에 실시되어 총 8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NRS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1994년 국민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조사(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NSRE)로 명칭을 변경했다. 가장 최근 실시된 NSRE 2000은 미국 내 5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 미국인들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수요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했다.

NSRE 2000은 미국인들 참여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형태 및 소비 행태에 대해 최초로 전국 단위로 조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NSRE 2000 이전에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조사로는 1955년부터 5년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식물 보호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 낚시와 사냥 등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조사(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 Associated Recreation)가 있으며, 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와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이 197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여가 낚시 조사(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Statistics Survey)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조사 모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바다낚시 활동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조사가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미 정부는 NSRE 2000에서 국민들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행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NSRE 2000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수상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19가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Marine Recreation)이라고 하지만 바다나 육지의 각종 형태의 수면과 그 주변(해변, 물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을 포괄한다[2]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미국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총 1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NSRE 2000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해수욕(Beach Visitation), 해변 산책/경관 감상(Visiting Watersides Besides Beaches), 수영(Swimming), 스노클링(Snorkeling),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서핑(Surfing), 윈드서핑(Wind

2) We defined Coastal and Ocean participation as participation in at least one of nineteen activities/settings. Survey respondents were asked if they participated in an activity/setting "in freshwater, saltwater or both" for activities and "in freshwater or saltwater surroundings or both" for setting.(NOAA et al, Current Participation Patterns in Marine Recreation, 2001.11, pp.1.)

Surfing), 바다낚시(Fishing), 모터보트(Motorboating), 요트(Sailing),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Use), 카누(Canoeing), 카약(Kayaking), 조정(Rowing), 수상스키(Waterskiing), 탐조관광(Bird Watching), 해변동식물 관찰(Viewing Other Wildlife in Water-based Surroundings),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Viewing or Photographing Scenery in Water-based Surroundings), 물새 사냥(Hunting Waterfowl)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총 19가지로 분류된다. NSRE 2000은 각 활동별로 참여율, 참여자 수, 참여자별 평균 투입일, 참여자별 연간 총 투입일을 조사했다.

| 표 3-3 | 미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분류

1	해수욕 (Beach Visitation)	11	수상오토바이 활동 (Personal Watercraft Use)
2	해변 산책/경관 감상 (Visiting Watersides Besides Beaches)	12	카누 타기 (Canoeing)
3	수영 (Swimming)	13	카약 타기 (Kayaking)
4	스노클링 (Snorkeling)	14	조정 (Rowing)
5	스쿠버 다이빙 (Scuba Diving)	15	수상스키 (Waterskiing)
6	서핑 (Surfing)	16	탐조관광 (Bird Watching)
7	윈드서핑 (Wind Surfing)	17	해변동식물 관찰 (Viewing Other Wildlife in Water-based Surroundings)
8	바다낚시 (Fishing)	18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Viewing or Photographing Scenery in Water-based Surroundings)
9	모터보트 활동 (Motorboating)	19	물새 사냥 (Hunting Waterfowl)
10	요트 (Sailing)		

자료 : NOAA et al, 『Current Participation Patterns in Marine Recreation』, 2001.11.

(2)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미국은 NSRE 2000을 통해 19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현황과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2000년 기준 미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중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은 해수욕(Visiting Beaches) 활동이며 총 6,367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 중 해변 관광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30.03%였다.

해수욕 다음으로 많은 수의 사람이 참여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수영으로 총 5,413만 명이 참여해 전체 참여자 중 25.5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바다낚시(2,188만 명, 10.32%),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1,949만 명, 9.19%), 탐조관광(1,520만 명, 7.17%), 모터보트 활동(1,508만 명, 7.11%)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실시한 NSRE 2000의 결과치를 근거로 2005년과 2010년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인구 및 투입일을 전망했는데, 참여 인구수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수욕 활동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총 투입일 기준으로도 해수욕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4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수 전망(2000~2010)

구분	2000		2005(e)		2010(e)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해수욕	30.03	63.67	29.85	67.59	29.59	70.94
해변 산책/ 경관 감상	4.50	9.54	4.51	10.22	4.52	10.84
수영	25.53	54.13	25.27	57.21	24.88	59.64
스노클링	5.07	10.75	5.02	11.38	4.96	11.88
스쿠버 다이빙	1.35	2.86	1.38	3.12	1.39	3.34
서핑	1.59	3.37	1.60	3.63	1.59	3.81
윈드서핑	0.39	0.83	0.39	0.89	0.39	0.94
바다낚시	10.32	21.88	10.29	23.31	10.24	24.54
모터보트	7.11	15.08	7.04	15.95	6.97	16.70
요트	2.98	6.32	2.95	6.69	2.92	7.00

| Ⅱ 3-4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수 전망(2000~2010)(계속)

구분	2000		2005(e)		2010(e)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	참여자수 (백만 명)
수상오토바이	2.57	5.45	2.55	5.77	2.50	5.99
카누	1.05	2.23	1.04	2.35	1.02	2.45
카약	1.33	2.82	1.33	3.01	1.31	3.15
조정	0.53	1.12	0.53	1.21	0.54	1.28
수상스키	1.15	2.44	1.14	2.57	1.12	2.69
탐조관광	9.19	19.49	9.11	20.62	9.02	21.62
해변동식물 관찰	0.33	0.70	0.34	0.77	0.35	0.83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7.17	15.20	7.11	16.10	7.03	16.86
물새사냥	6.45	13.68	6.37	14.41	6.26	15.01

주: e는 추정치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 Ⅱ 3-5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투입일 전망(2000~2010)

구분	일인당 평균 투입일(일)			총 투입일(천 일)		
	2000	2005(e)	2010(e)	2000	2005(e)	2010(e)
해수욕	4.14	4.10	4.04	878,698	927,663	969,569
해변 산책/ 경관 감상	0.77	0.77	0.77	163,160	175,045	184,241
수영	3.63	3.53	3.43	768,677	799,766	822,191
스노클링	0.45	0.43	0.42	94,601	98,408	100,553
스쿠버 다이빙	0.11	0.11	0.10	23,472	24,137	24,475
서핑	0.35	0.35	0.34	75,180	79,452	81,919
윈드서핑	0.03	0.03	0.03	5,953	6,340	6,550
바다낚시	1.26	1.25	1.24	266,959	282,574	296,510
모터보트	0.98	0.96	0.93	208,043	216,527	222,945
요트	0.24	0.24	0.24	49,917	53,892	57,071
수상오토바이	0.21	0.21	0.21	45,228	47,793	49,404
수상스키	0.14	0.13	0.13	29,016	30,050	30,445
탐조관광	4.01	4.02	3.99	849,585	909,945	956,451

| Ⅲ 3-5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투입일 전망(2000~2010)(계속)

구분	일인당 평균 투입일(일)			총 투입일(천 일)		
	2000	2005(e)	2010(e)	2000	2005(e)	2010(e)
해변동식물 관찰	0.03	0.03	0.03	6,507	6,968	7,390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3.05	2.99	2.92	647,640	678,087	700,042
물새사냥	1.65	1.58	1.51	350,110	358,643	362,596

주 : e는 추정치, 카누·카약조정은 데이터 수집 불가능
자료 :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2000년과 2010년의 참여자 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물새사냥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9.32% 증가해 19개 활동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 투입일 증가율을 보면 요트에 대한 투입일 증가율이 14.33%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물새사냥 활동(13.56%), 해변 산책/경관 감상(12.92%),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12.58%) 등의 활동의 투입일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Ⅲ 3-6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율(2000~2010)

구분	참여자 증가율(%)		총 투입일 증가율(%)	
	2000~2005	2000~2010	2000~2005	2000~2010
해수욕	6.15	11.42	5.57	10.34
해변 산책/경관 감상	7.14	13.62	7.28	12.92
수영	5.69	10.17	4.04	6.96
스노클링	5.84	10.53	4.02	6.29
스쿠버 다이빙	8.96	16.63	2.83	4.27
서핑	7.61	13.12	5.68	8.96
윈드서핑	7.48	13.36	6.50	10.02

| 표 3-6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율(2000~2010)(계속)

구분	참여자 증가율(%)		총 투입일 증가율(%)	
	2000~2005	2000~2010	2000~2005	2000~2010
바다낚시	6.51	12.14	5.85	11.07
모터보트	5.77	10.77	4.08	7.16
요트	5.82	10.84	7.97	14.33
수상오토바이	5.94	9.97	5.67	9.23
카누	5.62	9.94	n/a	n/a
카약	6.65	11.70	n/a	n/a
조정	7.61	14.13	n/a	n/a
수상스키	5.56	10.28	3.56	4.92
탐조관광	5.88	10.90	4.70	8.09
해변동식물 관찰	5.39	9.76	2.44	3.57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5.84	10.96	7.10	12.58
물새사냥	9.76	19.32	7.09	13.56

주: e는 추정치, 총 투입일 변화율 중 카누·카약조정은 데이터 수집 불가능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참여자 수와 투입일은 모든 활동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2000년과 2010년 사이의 참여자 수 증가치 전망을 비교해 보면 해수욕과 수영이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각각 약 727만 명, 55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9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중 참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투입일 증가치를 보면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이 1억 일, 해수욕이 9천만 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수영(5,351만 일), 탐조관광(5,240만 일), 바다낚시(2,955만 일)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3-7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치(2000~2010)

구분	참여자 증가치(명)		총 투입일 증가치(일)	
	2000~2005	2000~2010	2000~2005	2000~2010
해수욕	3,916,747	7,269,448	48,965,095	90,871,539
해변 산책/경관 감상	681,106	1,299,510	11,885,860	21,081,189
수영	3,079,046	5,505,755	31,088,997	53,513,407
스노클링	627,643	1,131,661	3,807,012	5,952,126
스쿠버 다이빙	256,469	476,149	665,358	1,003,146
서핑	256,482	442,278	4,271,439	6,738,960
윈드서핑	61,888	110,439	386,890	596,522
바다낚시	1,424,625	2,655,994	15,615,592	29,551,164
모터보트	869,722	1,623,573	8,484,466	14,901,757
요트	367,733	684,976	3,975,955	7,154,815
수상오토바이	323,661	543,063	2,564,611	4,175,869
카누	125,111	221,761	n/a	n/a
카약	187,493	329,832	n/a	n/a
조정	85,511	158,766	n/a	n/a
수상스키	135,618	250,588	1,033,956	1,428,177
탐조관광	893,587	1,657,856	30,446,735	52,402,514
해변동식물 관찰	736,848	1,334,612	8,533,442	12,486,276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1,138,011	2,136,606	60,360,103	106,865,943
물새사냥	68,292	135,196	461,282	882,681

주: e는 추정치, 총 투입일 증가치 중 카누·카약조정은 데이터 수집 불가능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19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관광적 특성이 강한 정적인 활동과 스포츠적인 특성이 강한 동적인 활동으로 구분해보면 해변 산책/경관 감상(Visiting Watersides Besides Beaches), 탐조관광(Bird Watching), 해변동식물 관찰(Viewing Other Wildlife in Water-based Surroundings),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Viewing or Photographing Scenery in Water-based Surroundings) 등은 전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인 수영(Swimming), 스노클링(Snorkeling),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서핑(Surfing), 윈드서핑(Wind Surfing), 바다낚시(Fishing), 모터보트(Motorboating), 요트(Sailing),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Use), 카누(Canoeing), 카약(Kayaking), 조정(Rowing), 수상스키

(Waterskiing), 물새 사냥(Hunting Waterfowl) 등은 스포츠적인 특성이 강하며 동적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표 3-8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구분

관광적 특성이 강한 정적인 활동	해변 산책/경관 감상, 탐조관광, 해변동식물 관찰, 경관 감상 또는 사진촬영
스포츠적 특성이 강한 동적인 활동	수영,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서핑, 윈드서핑, 바다낚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카누, 카약, 조정, 물새 사냥

주: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는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동력수상레저 활동임
자료: NOAA et al, 『Current Participation Patte1rns in Marine Recreation』, 2001.11. 재분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면 스포츠적인 특성이 강한 동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후자에 초점을 맞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 활동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분석하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모터보트(Motorboating), 요트(Sailing), 수상오토바이(Personal Watercraft Use), 수상스키(Waterskiing)를 중심으로 NSRE 2000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등 동력수상레저 활동 참여자 수는 2000년 2,929만 명에서 2010년에는 309만 명 정도 증가한 3,23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네 개 분야 모두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모터보트 분야로 16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요트(68만 명), 수상오토바이(54만 명), 수상스키(25만 명) 순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9 |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수 전망(2000~2010)

구분	2000		2005(e)		2010(e)	
	비율(%)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참여자수 (백만 명)	비율(%)	참여자수 (백만 명)
모터보트	7.11	15.08	7.04	15.95	6.97	16.70
요트	2.98	6.32	2.95	6.69	2.92	7.00
수상오토바이	2.57	5.45	2.55	5.77	2.50	5.99
수상스키	1.15	2.44	1.14	2.57	1.12	2.69
합계		29.29		30.98		32.38

주: e는 추정치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한편 2000년 기준으로 동력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일인당 투입일은 모터보트 활동이 가장 많아 0.98일이었으며, 수상스키가 0.14일로 가장 적었다. 2010년 일인당 투입일 전망치는 모터보트가 0.93일로 2000년의 0.98일보다 0.05일 감소했으며, 수상스키도 0.01일 감소한 0.13일로 전망되는 반면 요트와 수상오토바이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력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2000년 기준 총 투입일은 모터보트의 경우 약 2억 1천만 일, 수상스키의 경우 약 3천만 일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에는 네 개 활동 모두 총 투입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많이 증가한 활동은 모터보트로 약 1,500만 일이 증가한 2억 2천만 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는 요트(715만 일), 수상오토바이(418만 일), 수상스키(143만 일) 순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10 |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투입일 전망(2000~2010)

구분	일인당 평균 투입일(일)			총 투입일(천 일)		
	2000	2005(e)	2010(e)	2000	2005(e)	2010(e)
모터보트	0.98	0.96	0.93	208,043	216,527	222,945
요트	0.24	0.24	0.24	49,917	53,892	57,071
수상오토바이	0.21	0.21	0.21	45,228	47,793	49,404
수상스키	0.14	0.13	0.13	29,016	30,050	30,445

주: e는 추정치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동력수상레저 활동 참여자 증가율은 19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평균 증가율보다 모두 낮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총 투입일 증가율은 19개 활동 평균 증가율보다 동력수상레저 활동의 평균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요트의 총 투입일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Ⅲ 3-11 |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율(2000~2010)

구분	참여자 증가율(%)		총 투입일 증가율(%)	
	2000~2005	2000~2010	2000~2005	2000~2010
모터보트	5.77	10.77	4.08	7.16
요트	5.82	10.84	7.97	14.33
수상오토바이	5.94	9.97	5.67	9.23
수상스키	5.56	10.28	3.56	4.92
19개 활동 평균	6.59	12.08	5.15	8.71
동력수상레저 활동 평균	5.77	10.47	5.32	8.91

주: 2005년과 2010년은 추정치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한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동력수상레저 활동 참여자 증가치는 19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평균 증가치보다 대부분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모터보트 활동의 경우는 평균 증가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투입일 증가치 역시 19개 활동 평균 증가폭보다 동력수상레저 활동의 평균 증가폭이 적을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총 투입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은 모터보트로 약 1,490일을 더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3-12 | 동력수상레저 활동별 참여자 및 총 투입일 증가치(2000~2010)

구분	참여자 증가치(명)		총 투입일 증가치(일)	
	2000~2005	2000~2010	2000~2005	2000~2010
모터보트	869,722	1,623,573	8,484,466	14,901,757
요트	367,733	684,976	3,975,955	7,154,815
수상오토바이	323,661	543,063	2,564,611	4,175,869
수상스키	135,618	250,588	1,033,956	1,428,177
19개 활동 평균	801,873	1,472,003	14,534,175	25,600,380
동력수상레저 활동 평균	424,184	775,550	4,014,747	6,915,155

주: 2005년과 2010년은 추정치
자료: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3.

2) 영국

(1) 해양레저스포츠의 범위

영국은 2002년부터 매년 영국인들의 수상레저활동(Watersports)에 대한 참여율 및 빈도 등을 조사(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해왔다. 영국의 수상레저 관련 업무는 교통부 산하 해사해양경찰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MCA)에서 담당하며 각종 민간단체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조우정 외, 2013). 수상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조사(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는 영국해양협회(British Marine Federation; BMF)의 주도로 영국요트협회(Royal Yachting Association; RYA)와 함께 시행해왔으며, 2005년 이후 MCA, 영국구명선협회(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 RNLI), 영국카누협회(British Canoe Union; BCU), 해양관리기구(Marine Management Organisation; MMO)가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12년에 시행되었는데, 2002년 최초 조사가 실시된 이후 11년 동안 각 시기별로 조사 대상인 수상레저활동의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1기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BMF, RYA와 요트 관련 기업인 Sunsail이 주관한 시기로 조사 대상 수상레저활동은 총 12개이다. 2기는 2004년인데 이때는 MCA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Canal Boating을 제외한 20개 활동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3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으로 BMF, MCA, RNLI, RYA, Sunsail이 주도했으며, 총 21개 활동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4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Sunsail 대신 요트 관련 커뮤니티인 Yachting and Boating World가 합류해 3기와 동일하게 21개 활동을 조사했다. 5기는 2010년으로 Yachting and Boating World가 빠지고 BCU가 참여했으며 1기와 동일한 12개 활동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6기는 2011년부터 2012년인데 BMF, MCA, RNLI, RYA, BCU, MMO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총 21개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주관 기관인 BMF는 총 21개의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중 2004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매년 공통적으로 조사한 12개 활동(카누, 수상스키, 소형보트, 조정, 윈드서핑,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크루징, 요트크루징, 파워보트, 소형보트경기, 운하용보트, 요트경기)을 묶어 ‘모든 보트 활동(Any Boating Activities)’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 표 3-13 | 수상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조사의 시기별 변화

구분	BMF/ RYA/ Sunsail	MCA	BMF/ MCA/ RNLI/ RYA/ Sunsail	BMF/ MCA/ RNLI/ RYA/ Ybw.com	BMF/ MCA/ RNLI/ RYA/ BCU	BMF/ MCA/ RNLI/ RYA/ BCU/ MMO
	2002 ~2004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카누	✓	✓	✓	✓	✓	✓
수상스키	✓	✓	✓	✓	✓	✓
소형보트	✓	✓	✓	✓	✓	✓
조정	✓	✓	✓	✓	✓	✓
윈드서핑	✓	✓	✓	✓	✓	✓
수상오토바이	✓	✓	✓	✓	✓	✓
모터보트/크루징	✓	✓	✓	✓	✓	✓
요트크루징	✓	✓	✓	✓	✓	✓
파워보트	✓	✓	✓	✓	✓	✓
소형보트경주	✓	✓	✓	✓	✓	✓
운하용보트	✓	✓	✓	✓	✓	✓
요트경주	✓	-	✓	✓	✓	✓
서핑	-	✓	✓	✓	-	✓
래프팅*	-	-	-	-	-	✓
카이트서핑	-	✓	✓	✓	-	✓
낚시(보트)	-	✓	✓	✓	-	✓
낚시(해변)	-	✓	✓	✓	-	✓
절벽등반	-	✓	✓	✓	-	✓
해변산책	-	✓	✓	✓	-	✓
야외수영	-	✓	✓	✓	-	✓
수중 다이빙	-	✓	✓	✓	-	✓
해변에서의 기타 여가활동	-	✓	✓	✓	-	✓
코스티어링*	-	-	-	-	-	✓

주: 코스티어링(Coasteering)은 절벽을 오르내리고 수영을 하며 해안선을 도는 스포츠를 의미함. 래프팅과 코스티어링은 2012년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됨

자료: BMF et al, 『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 2011』. 2012;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재구성

(2) 해양레저스포츠 현황

영국은 2002년부터 11년간 시행된 수상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조사(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의 현황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수상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전체 인구의 22.7%인 1,115만 명이 [표 3-14]에서 나열된 22개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5.8%인 약 284만 명이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Any Boating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 중 카누를 타는 사람의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22개 수상레저 관련 활동 중에서는 해변에서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다.

2011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의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은 0.1% 포인트 감소했으며, 22개 전체 수상레저활동 참여율 역시 2.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활동별로는 해변 산책과 야외수영 활동의 참여자 수가 제일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증가한 활동 중에는 해변에서 기타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MF는 2012년의 전반적인 수상레저활동 참여 인구수 및 참여율의 감소를 경제적인 요인에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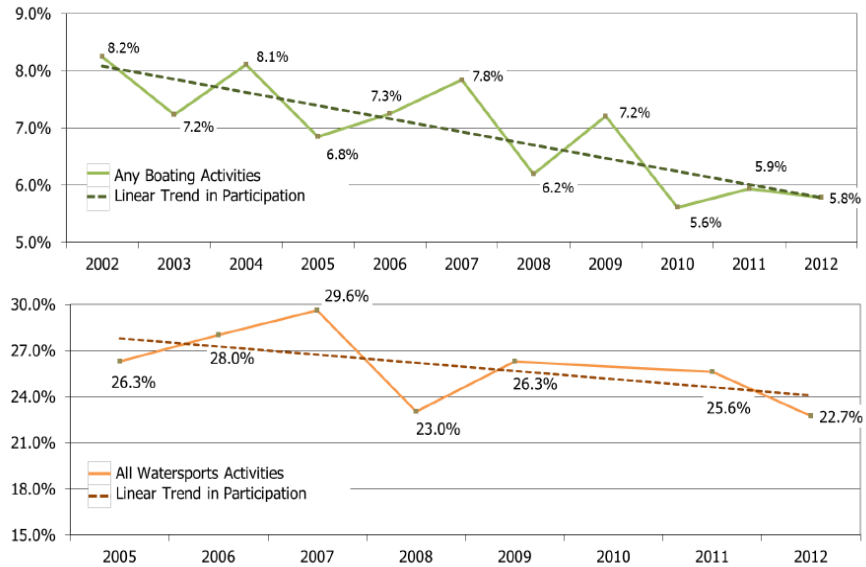
한편 22개 수상레저활동과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참여율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보면, 양자 모두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감소하고 있다. 22개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의 경우 2005년 이후 3.6%포인트 감소한데 비해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 감소해 그 감소폭이 전체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의 감소폭보다 작았다.

| 표 3-14 | 영국 수상레저활동 참여자수 및 참여율

구분	수상레저활동 참여자수(천 명)			수상레저활동 참여율(%)		
	2011	2012	증감 (%포인트)	2011	2012	증감 (%포인트)
전체 수상레저활동	12,589	11,153	-1,436	24.9	22.7	-2.2
12개 주요 수상레저활동	2,996	2,837	-159	5.9	5.8	-0.1
카누	1,212	1,214	2	2.4	2.5	0.1
수상스키	226	189	-37	0.5	0.4	-0.1
소형보트	491	388	-103	1.0	0.8	-0.2
조정	305	200	-105	0.6	0.4	-0.2
윈드서핑	185	128	-57	0.4	0.3	-0.1
수상오토바이	214	136	-78	0.4	0.3	-0.1
모터보트/크루징	405	414	9	0.8	0.8	0.0
요트크루징	278	329	51	0.6	0.7	0.1
파워보트	255	290	35	0.5	0.6	0.1
소형보트경주	151	166	15	0.3	0.3	0.0
운하용보트	314	287	-27	0.6	0.6	0.0
요트경주	85	106	21	0.2	0.2	0.0
서핑	596	599	3	1.2	1.2	0.0
래프팅	-	181	-	-	0.4	-
카이트서핑	173	47	-126	0.3	0.1	-0.2
낚시(보트)	553	1,022	-	1.1	2.1	-0.4
낚시(해변)	984			2.0		
절벽등반	407	224	-183	0.9	0.5	-0.4
해변산책	4,652	3,430	-1,222	9.2	7.0	-2.2
야외수영	4,571	3,466	-1,105	9.1	7.1	-2.0
수중 다이빙	345	208	-137	0.7	0.4	-0.3
해변에서의 기타 여가활동	5,893	6,056	163	11.6	12.3	0.7
코스티어링	-	82	-	-	0.2	-

주: 래프팅과 코스티어링은 2012년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됨

자료: BMF et al, 『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 2011』. 2012;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재구성



자료: BMF et al,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 그림 3-2 | 수상레저활동 참여율의 장기적인 추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는 연안 지역과 내륙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2개 수상레저활동 중 대다수가 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22개 수상레저활동의 66.6%가 연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33.4%가 내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활동으로는 소형보트경주(86.3%), 카누(76.1%),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51.7%) 등 세 개 활동이 있다.

| 표 3-15 |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구분	연안 지역		내륙 지역	
	활동수(회)	비율(%)	활동수(회)	비율(%)
전체 수상레저활동	104,287,197	66.6	52,187,765	33.4
카누	1,464,145	23.9	4,661,542	76.1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271,750	48.3	290,895	51.7

| Ⅲ 3-15 |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계속)

구분	연안 지역		내륙 지역	
	활동수(회)	비율(%)	활동수(회)	비율(%)
소형보트	1,127,717	60.0	750,383	40.0
윈드서핑	318,363	76.2	99,309	23.8
수상오토바이	281,559	78.8	75,867	21.2
모터보트/크루징	1,258,847	77.4	367,318	22.6
요트크루징	896,155	87.2	132,075	12.8
파워보트	840,733	61.1	536,369	38.9
소형보트경주	210,134	13.7	1,325,818	86.3
요트경주	412,615	82.1	89,766	17.9
서핑	6,513,878	87.7	917,349	12.3
래프팅	184,068	54.5	153,832	45.5
카이트서핑	315,584	95.6	14,355	4.4
낚시	7,599,770	76.8	2,292,014	23.2
절벽등반	2,372,770	98.0	48,141	2.0
야외수영	13,260,183	79.2	3,480,033	20.8
수중 다이빙	417,592	80.0	104,549	20.0

자료: BMF et al,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수상레저활동 참여자들 중 동호회 및 클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이 높은 활동으로는 요트경주(62.7%), 수중 다이빙(62.5%), 소형보트경주(50.2%)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동호회 및 클럽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방법인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동호회 및 클럽 활동이 활발한 활동으로는 윈드서핑(41.0%), 조정(31.3%),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30.5%), 수상오토바이(29.1%) 등이 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 참여 빈도가 잦을수록 동호회 및 클럽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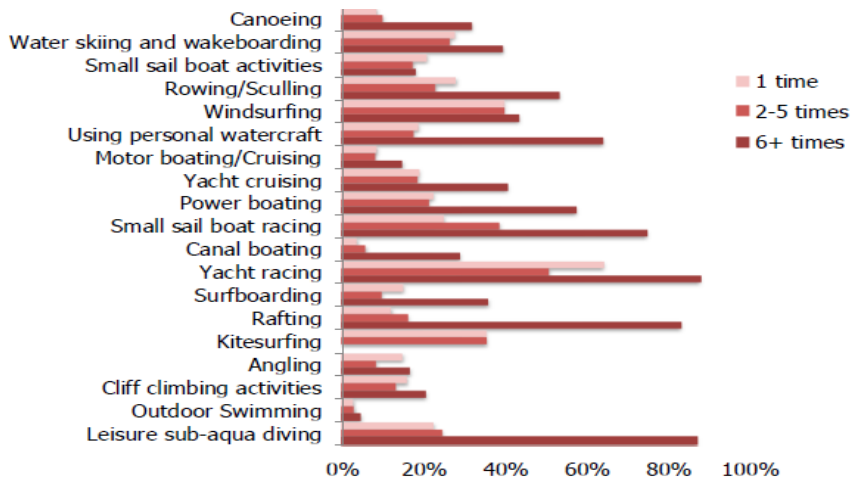
| Ⅲ 3-16 | 수상레저활동 참여자 중 동호회/클럽 가입자수 및 비율

구분	가입자 비율(%)			가입자수(명)
	2009	2011	2012	2010
카누	7.1	25.0	14.6	58,287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9.7	26.2	30.5	8,421

| 표 3-16 | 수상레저활동 참여자 중 동호회/클럽 가입자수 및 비율(계속)

구분	가입자 비율(%)			가입자수(명)
	2009	2011	2012	2010
소형보트	20.6	29.9	19.0	18,957
조정	14.2	33.6	31.3	14,017
윈드서핑	14.6	25.1	41.0	10,594
수상오토바이	3.0	19.6	29.1	5,565
모터보트/크루징	9.2	22.5	9.5	10,248
요트크루징	30.2	36.9	22.7	22,699
파워보트	14.6	28.7	28.4	12,191
소형보트경주	42.4	39.3	50.2	21,801
운하용보트	6.7	21.9	7.1	8,894
요트경주	60.5	47.5	62.7	21,239
서핑	5.3	25.0	18.2	20,616
래프팅	10.4	24.8	17.8	5,430
카이트서핑	13.4	15.3	14.9	1,228
낚시(보트)	15.1	26.3	13.7	47,108
낚시(해변)	17.9	28.6		
절벽등반	1.1	10.6	16.7	7,145
야외수영	2.6	13.4	3.6	41,219
수중 다이빙	46.9	31.9	62.5	8,650

자료 : BMF et al, 『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 2011』. 2012.;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자료: BMF et al,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 그림 3-3 | 수상레저활동 참여빈도와 동호회/클럽 가입율

3) 일본

수산업활동 여건 및 바다를 이용하는 레저활동 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본은 레저백서 발간을 통해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스포츠 활동 및 해양공간에서의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요트, 모터보트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바다낚시와 스킨스쿠버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요트, 모터보트는 2008년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버블경제와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근 해양레저 이벤트 및 거점공간 조성사업(바다의 역)을 통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시장을 다시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레저보트 임대사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Ⅲ 3-17 | 일본 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율 추이

스포츠 부문	참가율(%)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조깅, 마라톤	24.3	24.8	19.2	21.7	20.6	23.1	27.4
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종류)	30.0	30.8	20.9	19.0	19.4	20.2	28.8
트레이닝	12.0	14.7	10.3	11.5	13.0	11.9	189
에어로빅, 재즈댄스	4.6	5.7	4.0	4.7	4.3	4.6	5.9
탁구	11.7	12.9	7.8	7.1	6.2	7.3	10.2
배드민턴	10.8	10.2	7.6	8.4	6.7	8.3	10.1
캐치볼, 야구	15.9	15.9	11.3	10.9	10.3	11.4	10.9
소프트볼	8.6	7.2	4.1	4.0	3.7	3.6	4.7
사이클링, 사이클스포츠	13.5	14.5	8.4	7.9	9.0	8.6	14.8
아이스스케이트	4.9	3.8	2.0	2.5	2.2	1.8	2.7
볼링	35.6	30.6	25.0	22.7	22.7	21.3	21.6
축구	6.6	6.4	6.4	6.2	5.7	6.1	6.4
배구	7.9	7.4	4.7	5.4	4.8	5.6	6.9
농구	6.3	4.5	3.6	3.8	3.6	4.0	5.3
수영(수영장 내)	23.2	22.0	14.9	14.6	14.0	13.1	15.8
유도, 검도, 공수 등의 무도	2.7	3.2	2.1	2.0	1.8	1.9	2.7
게이트 볼	1.4	1.1	0.9	0.8	0.8	0.8	0.7
골프(코스)	13.0	11.9	9.8	8.1	7.5	8.6	9.4
골프(연습장)	14.7	12.8	9.4	8.0	7.3	8.6	10.3
테니스	10.1	7.5	6.6	6.1	5.2	5.9	7.3
승마	0.9	0.5	0.3	0.2	0.2	0.5	0.7
스키	15.7	10.7	6.4	5.5	5.1	6.2	7.0
스노보드	-	4.2	4.7	3.8	3.6	4.0	4.1
낚시	18.6	16.2	9.7	11.7	10.4	10.1	10.2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1.6	1.2	1.0	13.6	1.5	0.9	1.7
서핑, 윈드서핑	0.9	0.8	1.6	1.0	1.1	1.1	0.6
요트, 모터보트	0.9	1.1	0.8	0.6	0.5	0.4	0.8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0.4	0.4	0.2	0.3	0.1	0.1	0.2

자료: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レジャ-白書 : 余暇需要の變化と「ニュ―ツ―リズム」』 각 년도.

| 표 3-18 | 일본 레저스포츠 활동 참가인구 변화 추이

스포츠 부문	참가 인구(만 명)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조깅, 마라톤	2,500	2,690	2,120	2,390	2,280	2,550	2,810
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종류)	3,240	3,340	2,300	2,100	2,140	2,230	2,950
트레이닝	1,250	1,600	1,140	1,270	1,440	1,310	1,940
에어로빅, 재즈댄스	420	620	440	520	480	510	600
탁구	1,230	1,400	860	780	690	810	1,050
배드민턴	1,270	1,110	840	930	740	920	1,040
캐치볼, 야구	1,700	1,730	1,250	1,200	1,140	1,260	1,120
소프트볼	1,070	780	450	440	410	400	480
사이클링, 사이클스포츠	1,430	1,570	930	870	990	950	1,520
아이스스케이트	580	410	220	280	240	200	280
볼링	3,750	3,320	2,760	2,510	2,510	2,350	2,210
축구	730	700	710	680	630	670	660
배구	940	800	520	600	530	620	710
농구	640	490	400	420	400	440	540
수영(수영장 내)	2,340	2,390	1,640	1,610	1,550	1,450	1,620
유도, 검도, 공수 등의 무도	300	350	230	220	200	210	280
게이트 볼	160	120	100	90	90	90	70
골프(코스)	1,420	1,290	1,080	890	830	950	960
골프(연습장)	1,600	1,390	1,040	880	810	950	1,060
테니스	1,140	810	730	670	570	650	750
승마	60	50	30	20	20	60	70
스키	1,630	1,160	710	610	560	690	720
스노보드	-	460	520	420	400	440	420
낚시	1,850	1,680	1,070	1,290	1,150	1,120	1,050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140	150	110	140	170	100	170
서핑, 윈드서핑	120	100	180	110	120	120	60
요트, 모터보트	110	110	90	70	60	40	80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40	30	20	30	10	10	20

자료 :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レジャ-白書 : 余暇需要の變化と「ニュ―ツ―リズム」』 각 년도

4)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사례

(1) 미국의 Welcome to the Water와 National Marina Day

가. Welcome to the Water

Welcome to the Water는 보트 및 보트를 이용한 활동에 대해 친밀감을 조성하고 보트활동 참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 내의 해양장비산업협회들이 협력해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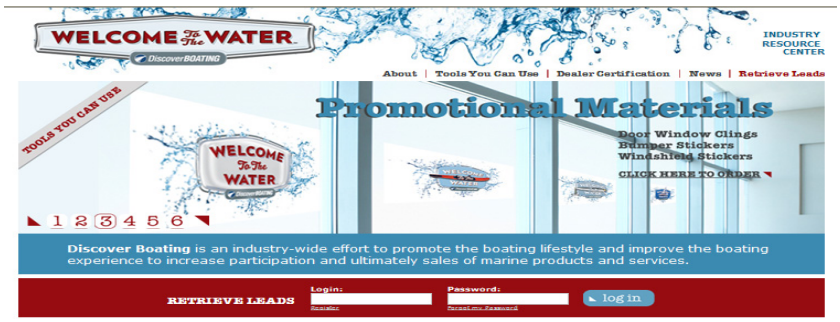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비영리조직인 Grow Boating이며, 해양장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Grow Boating은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을 통해 보트를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 보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장비 및 보트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 http://www.growboating.org/

| 그림 3-4 |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 로고

Grow Boating의 이사회는 Marine Retailers Association of America(MRAA), National Marine Manufacturers Association(NMMA) 회원사로 이루어지며, 보트 제작 분과, 엔진제작 분과, 판매 분과, 기타 부대사업 분과, Discover Boating Canada 캠페인 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는 보트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회원사에게도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산업 내 파급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자료: http://www.growboating.org/

| 그림 3-5 |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 소개 웹사이트

2013년 9월 기준으로 Grow Boating은 올 한 해 동안 66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현재 확정된 앞으로 추진할 활동은 캠페인 홈페이지(DiscoverBoating.com)의 콘텐츠 강화 및 모바일 접근성 제고, DiscoverBoating.com을 통한 보트 제작사 홈페이지에 대한 연결성 제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핵심 소비자층 공략, 마케팅 전략 개발, 광고 및 홍보 강화, 인증업무 지원(Marine Five Star Dealership Certification program) 등이다.

| 표 3-19 |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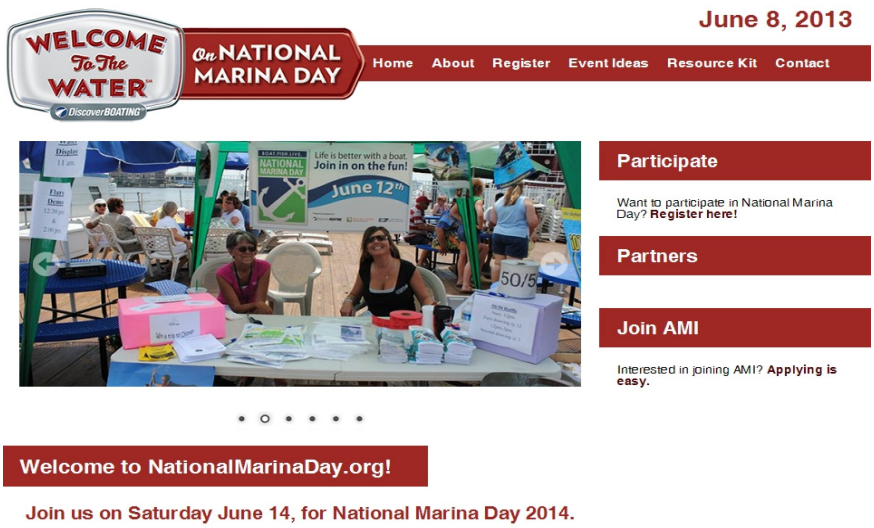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홍보물	보트를 이용한 레저활동 가이드북 제공(영어, 스페인어), 건물(창문, 문 등)과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 스티커 제공, 홍보 영상, 의류 등
홍보 파일	홈페이지 게시용 영상물(보트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한 영상물), 캠페인 로고 파일
기타	SNS를 이용한 홍보 요령, 인터뷰 가이드라인 및 기법 등

자료: http://www.growboating.org/

나. National Marina Day

Association of Marina Industries는 2001년 2월, 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8월 2번째 주 토요일을 National Marina Day로 지정했다. 2001년 8월 제1회 National Marina Day가 개최된 이후 2012년부터는 6월에 개최되고 있다. 현재 National Marina Day 조직위원회는 레저보트활동 진흥을 위한 Discover Boating과 Welcome to the Water 캠페인 등과 협력하여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National Marina Day 조직위원회는 마리나, 보트 판매자, 교육/안전 관련 기관, 보트 제작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마리나 관련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National Marina Day에는 보트 운전 기술과 관련된 교육, 장비 전시회, 무료 승선 체험, 안전 교육, 기타 이벤트 등의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보트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레저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자료 : http://www.nationalmarinaday.org/

| 그림 3-6 | National Marina Day 홈페이지

(2) 미국과 캐나다의 Discover Boating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저보트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미 레저보트 산업계를 대표하여 National Marine Manufacturers Association(NMMA)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www.discoverboating.com)과 캐나다(www.discoverboating.ca)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Discover Boating 사이트는 보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잠재수요 발굴, 더 많은 사람들이 레저보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등의 목표를 위해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레저보트에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료 : http://www.discoverboating.ca/

| 그림 3-7 |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캐나다)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트에 대한 설명과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레저보트 및 보트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보트 구입시 유의점, 보트 판매처 정보

및 홈페이지 링크 등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의 연결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도 보트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와 보트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다.

| 표 3-20 |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영상물	보트를 이용한 레저활동 홍보물, 보트 구입 요령, 보트 운전 요령, 다양한 보트에 대한 설명, 가족들과 즐기는 레저보트 활동 방법 등
관련 사이트 소개	인증된 보트 판매처, 보트 임대 사무실, 보트 교육센터, 보트와 관련된 각종 장비 판매처, 보트 클럽 및 동호회 등
기타	보트를 이용해 관광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 검색, 보트 관리 방법, 앱과 보트게임, 잡지 등

자료: http://www.growboati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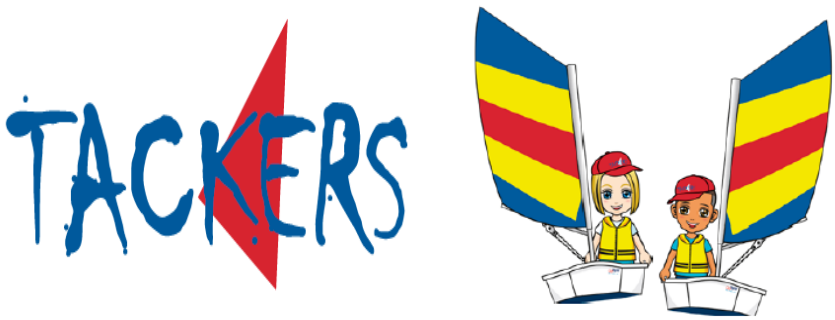
(3) 호주의 Tackers 프로그램(Tackers junior sailing program)

호주는 2006년부터 7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Tackers라는 요트 세일링 체험 프로그램(정식 명칭 : Tackers junior sail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Tackers 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의 모든 어린이들이 저렴한 비용(0.5일에 25달러)으로 전문적이고 안전하며 즐거운 환경에서 요트 세일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http://www.yachting.org.au/participation/tackers/benefits-of-tackers-for-clubs/

| 그림 3-8 | Tackers 프로그램 소개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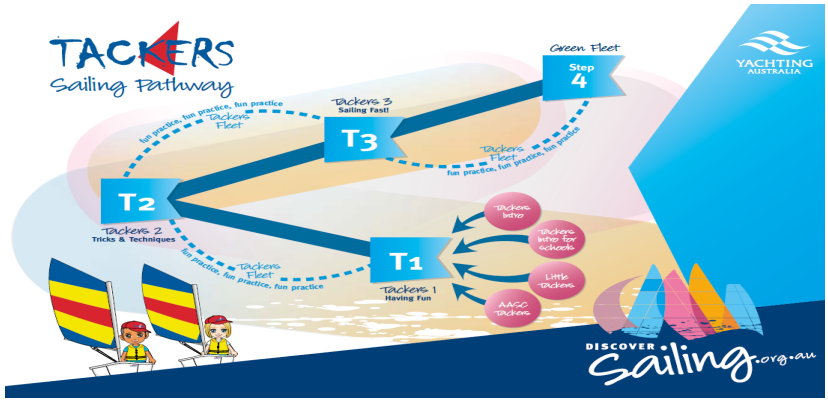
Tackers 프로그램은 호주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60여 곳의 공인 센터(Yachting Australia Tackers Club)에서 운영되며, 경쟁이 아닌 놀이를 통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각 지역의 Tackers 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존의 요트 클럽 중 자원하는 클럽에 대해 Yachting Australia가 인증하는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Yachting Australia 산하 각 주의 요트 협회마다 Tackers 프로그램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Tackers 프로그램 육성에 책임을 지고 있다.



자료: Tackers Graphical Standards Guide 2013-2014.

| 그림 3-9 | Tackers 프로그램 로고 및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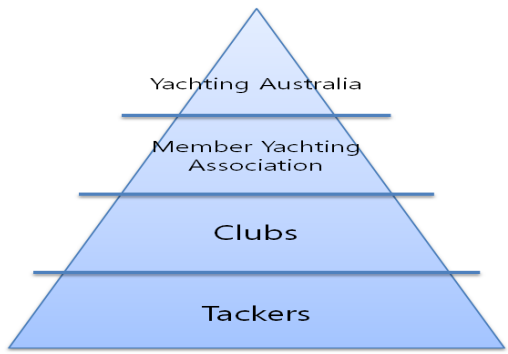
Tackers 프로그램은 각 센터별로 연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1,000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소형 보트 세일링(Get into Small Boat Sailing)'을 기초로 한 3단계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0.5일은 입문 교육, 5.5일은 기초 세일링 교육, 5.5일은 심화 세일링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세일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수상안전교육 및 세일링 이론 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료: Tackers Information & Application Guide for Clubs 2013-2014.

| 그림 3-10 | Tackers 프로그램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Tackers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Yachting Australia가 주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세일링 교육을 통해 요트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스포츠 활동 및 이를 통해 유발된 관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므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녀들이 참여함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세일링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그림 3-11 | 호주 Tackers 프로그램 조직도

한편 Tackers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요트 인구가 늘어나고 요트 세일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역 동호회 회원과 보트 척수를 비롯해 선석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요트 관련 기업들도 홍보효과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4) 일본의 바다의 역(海の驛)

일본은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 구축 및 해양레저스포츠 정보교류를 위하여 '바다의 역(海の驛)'이라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의 역은 '바다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편하고 안심하게 들려 이용하고 쉰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다. 초기 바다의 역은 대형요트와 모터보트 등의 이용환경 정비, 네트워크화를 통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 3월에 히로시마현 토요군 토요마치(지금은 쿠레시(吳市))를 이도(離島) 촉진을 위해 제1호로 지정하였다.

2013년 3월 현재 일본 전국에 136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바다의 역은 '바다에서 놀다, 바다를 체험한다, 바다를 맛본다, 바다에서 쉰다'라는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바다에서 놀다', '바다를 체험한다'의 테마는 관광선과 크루징, 낚시, 각종 해양스포츠, 렌탈보트, 해수욕 등을 통한 동적인 활동을 추구하며, 보트면허의 취득과 갱신도 바다의 역에서 가능하다. '바다를 맛보다'는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다채로운 수산물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바다에서 쉰다' 테마에서는 온천여행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형 관광과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캠핑공간, 놀이공원, 쇼핑몰 등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바다의 역 홈페이지(www.umi-eki.jp/pdf/leaflet.pdf)

| 그림 3-12 | 일본 바다의 역 지정현황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젊은층이 바다를 꺼려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 해사국에서는 해양 관련 단체로 구성된 UMI 협의회와 연계하여 해양레저종합포털 사이트인 'UMI channel'을 통해 해양이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에 대한 경험이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이트(우미나데시코)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의 매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미나데시코를 통해 바다카약교실, 딩기체험교실, 마리나시설 견학

회, 크루즈 체험,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해양체험세미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천여행과 갈치낚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UMI channel에서는 초보자도 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카누/카약, 윈드서핑, 바다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UMI channel 홈페이지(www.uminiikou.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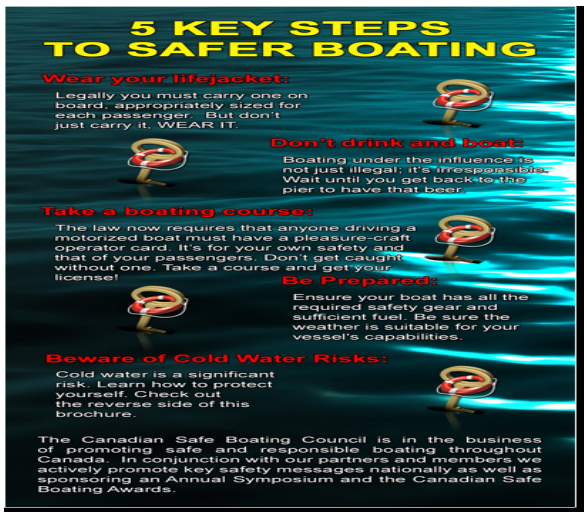
| 그림 3-13 | 일본 UMI channel 포털

(5) 캐나다의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캐나다의 Safe Boating Council(CSBC)은 안전한 레저보트 활동을 위해서 정부, 민간기업, 유관 단체들이 협력해 1991년 설립했다. CSBC는 1990년대부터 보다 안전한 레저보트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매년 안전한 레저보트 활동과 관련된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CSBC는 1997년부터 매년 토론토 보트쇼가 개최되는 시기에 Canadian Safe Boating Awards 행사를 함께 개최해 레저보트 활동과 관련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구명조끼 필수 착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캐나다 내에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 레저보트 활동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CSBC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캠페인이다.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캠페인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레저보트 활동 시기가 시작될 무렵에 시행된다. 2013년에 시행되었던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캠페인(2013.5.18~24)은 5가지 핵심 메시지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2013년 5대 핵심 메시지는 첫째, 구명조끼 착용, 둘째, 음주 후 보트 승선 금지, 셋째, 보트 교육 프로그램 수강, 넷째, 보트의 사전 점검, 다섯째, 저온침수 위험 인식이었다. CSBC는 이 외에도 레저보트 활동 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해 사고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자료 : http://www.csbc.ca/

| 그림 3-14 | North American Safe Boating Awareness Week 5대 핵심 메시지

3. 종합분석

1)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다양화 유도

미국과 영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자는 증가하는데 반해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자 비율은 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핵심적인 12개 해양레저스포츠의 경우 모든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비해 그 감소폭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자 및 참여율은 각 국가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그 추세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조사 초기에 비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NSRE 2000 이전에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조사로는 1955년부터 5년마다 시행된 낚시와 사냥 등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조사(National Survey of Fishing, Hunting and Wildlife Associated Recreation)와 197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여가 낚시 조사(Marine Recreational Fisheries Statistics Survey)가 유일했다. 그러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종류도 늘어나 바다낚시 활동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미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세부적으로 총 19개의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활동별 참여 행태의 변화를 조사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2001년부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총 11회의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종류도 변화해 왔다. 제1회 조사에서 총 12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2년 조사에서는 총 22개 활동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양레저스포츠로 분류되는 활동이 다양해져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유도

앞서 언급한 해양레저스포츠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각국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각국이 시행 중인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통한 저변 확대와 수요 증진은 궁극적으로 해양레저산업의 진흥으로 귀결되므로 각국은 국민들의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인이 될 때까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가능해지고 사회 전반적인 친수문화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한편 해양레저스포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레저산업과 관련된 협회가 주축이 되어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웹페이지의 메뉴 구성에

있다. 각국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웹페이지에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구입과 관련된 기업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및 클럽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문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정보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확산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수칙 및 장비를 개발하고 이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바다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벤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바다와 관련된 기념일 또는 주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중에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다.

3) 해양레저스포츠 거점공간 개발과 홍보연계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과 관련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레저보트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마리나시설이 기반시설 역할 및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마리나의 서비스기능 제고 및 해양레저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다의 역'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바다의 역은 일본 주요 해양도시의 레저거점지역을 대상으로 마리나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표준화했으며, 홍보사이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레저보트 이용자들은 바다의 역을 통하여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레저활동 정보를 얻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개발 도입기에 있는 우리나라도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을 주요 지역마다 설정하고 해양레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레저 거점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4 장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레저활동의 유형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으나,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은 친수문화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으며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여건이 육상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해양레저 선진국들은 레저행태 및 트렌드의 다변화 흐름에 따라 해양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레저스포츠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친수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유소년 시기부터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편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여건 및 활동행태는 기초환경이나 레저문화 자체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해양레저스포츠가 하나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문화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친수문화의 확산이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연안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영역에 대한 설정과 더불어 단계별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영역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정책목표와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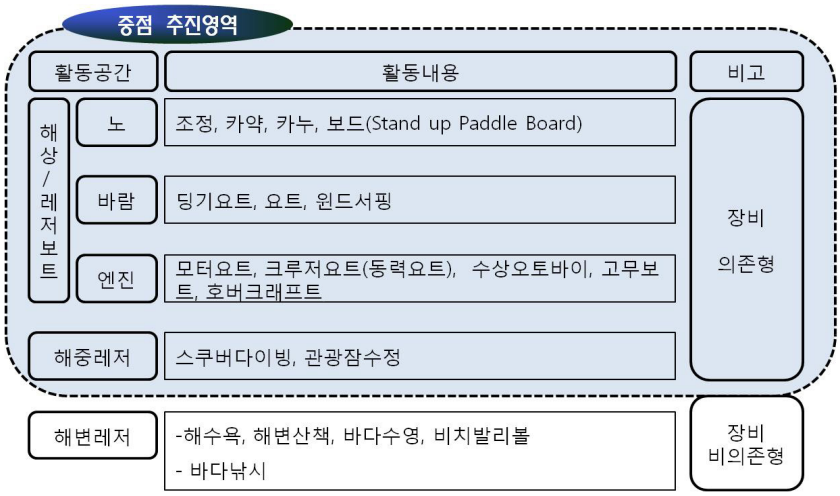
1. 정책추진영역과 추진방향의 설정

1) 정책추진영역의 설정

국내 레저와 스포츠 활동, 수상레저활동 및 해외 해양레저활동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해수욕이나 해변경관감상에서부터 세일링, 바다낚시, 다이빙, 스킨스쿠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과거부터 정책추진 과정에 여러 부처들이 연계되어 레저, 스포츠, 수상레저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활동 범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해양레저스포츠가 해양수산부의 정책영역에 포함되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영역설정이 필요하다. 앞서 [그림 2-4]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활동공간과 레저장비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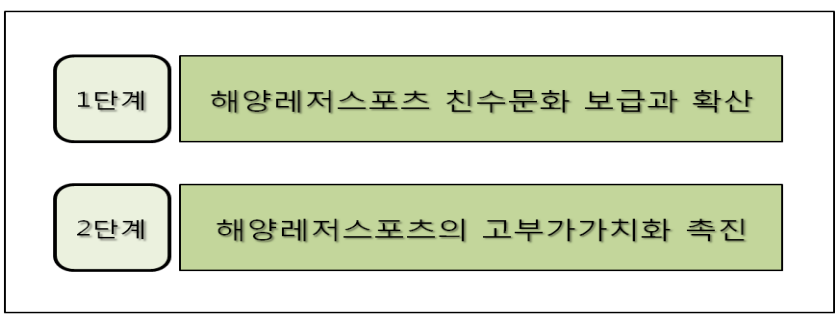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해양레저스포츠의 정책영역 중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산업과의 연계성 및 타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성과가 높은 부문을 중점 추진영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제반 영역 중에서 레저보트를 활용하는 관광활동과 더불어 해중레저활동 중 스킨스쿠버를 중점 추진영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마리나산업이 해양수산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리나시설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중레저활동 중 스킨스쿠버활동 또한 레저보트활동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연안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스포츠 중점 추진영역은 [그림 4-1]과 같다.



| 그림 4-1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영역

2)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해양레저스포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영역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시장은 도입단계이므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한다.



| 그림 4-2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본방향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수문화의 보급과 이를 통한 시장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단계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체험이벤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친수문화를 육성시키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과 더불어 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학교나 직장과 연계하고 지역단위 동호회나 클럽으로 육성시켜 시장수요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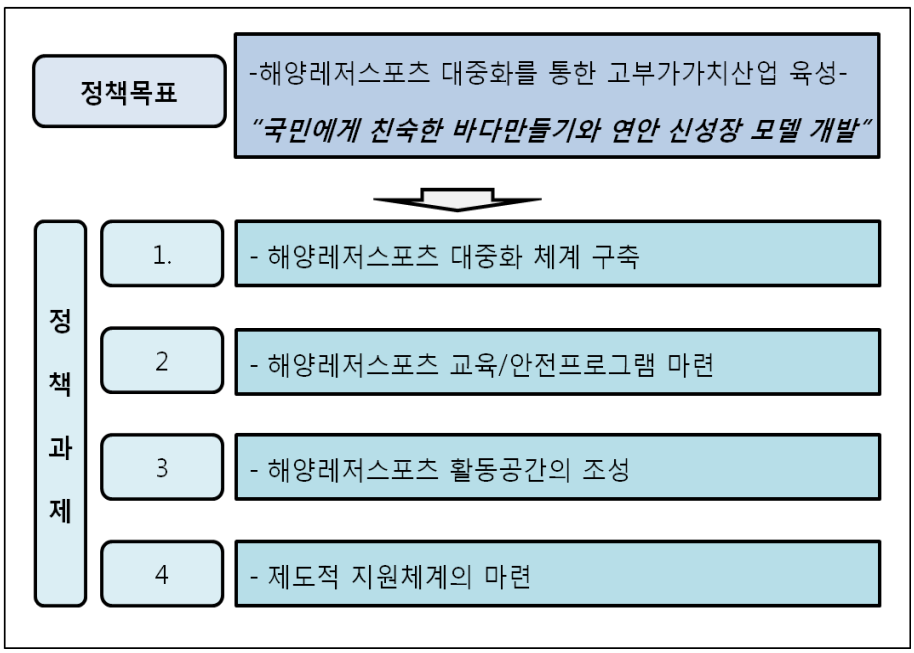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친수문화가 확산되고 해양레저스포츠 시장수요가 증가되면 이를 관련 서비스산업 및 장비산업과 함께 성장시켜 고부가가치화 하도록 한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의 레저장비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하여 서비스와 제조, 관광을 동반 성장시켜 해양레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그림 4-3 |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생태계 구축

2.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도출

1)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해양레저스포츠의 정책영역과 이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정책목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친숙한 바다만들기와 연안 신성장 모델개발'을 달성하도록 한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체계 구축, 교육/안전망 확보, 활동공간 조성,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그림 4-4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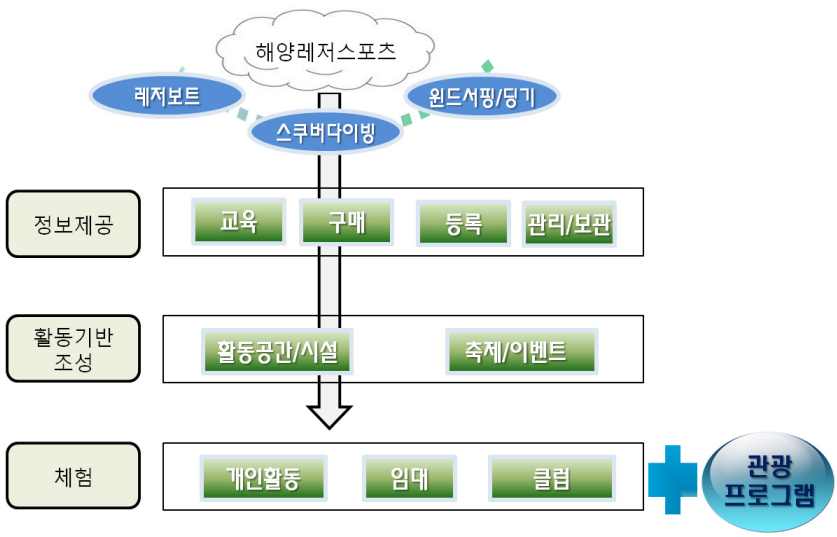
2) 정책과제별 추진 방향

(1)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2013년 재출범과 함께 체험교실 운영과 각종 행사 개최 등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수요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마리나 포털 사이트 구축, 해양레저네트워크, 마리나산업협회, 마리나항만협회 등 민간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의 연계체제 구축(거버넌스)이 매우 중요하며,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상호 교류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그림 4-5 |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사업과 홍보체계

한편 국내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이벤트나 체험사업, 정보제공 등은 아직 순환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기반 조성', '체험'이 서로 연계되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정부 포털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참여 희망자에게 레저활동과 관련된 교육, 구매, 등록, 관리/보관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레저활동의 참여를 위한 활동공간/시설, 축제/이벤트 등을 공공 혹은 민간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레저활동을 비롯해 레저기구의 임대나 클럽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이나 활동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그림 4-6 |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체계 구축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체계 구축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해양레저스포츠 정보포털의 구축(기존 정보망과의 연계)
▷ 해양레저스포츠 유관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 레저보트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육성/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클럽과 동호회 육성/지역단위 대회개최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연계 관광콘텐츠/프로그램 개발

(2)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안전프로그램의 마련

일반인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과 안전교육/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레저보트면허 취득자가 증가하면서 지역별 요트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요트학교나 체험교실들은 대부분 단순한 일회성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이용수요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다룬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친수교육 → 청소년 체험학교 → 지역/동호회 클럽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www.oleports.or.kr

| 그림 4-7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포털

이와 더불어 해양레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2013년 여름, 태안군에서 발생한 청소년캠프 사고와 같이 해양레저활동은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안전사고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시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과 구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탑스넷의 『2013 레저스포츠 현황 및 사고통계』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해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부주의가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은 레저활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표 4-1 | 수상레저스포츠 사망자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
사망사고	1 명	1 명	4 명	4 명	6 명	6 명

자료: 탑스넷, 『2013 레저스포츠 현황 및 사고통계』, 2013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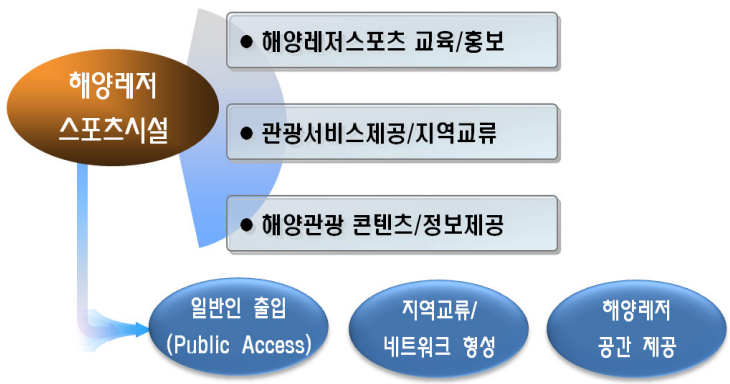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교육인증
▷ 유소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학교 운영(학교교육/방과후 교육연계)
▷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강사 육성
▷ 해양레저스포츠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해양레저스포츠 안전사고 대처 매뉴얼 및 구조체계 다양화(공공/민간)
▷ 해양레저스포츠 안전사고 홍보프로그램 마련

(3)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의 조성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조성을 통한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법과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거점형 마리나, 소규모 마리나, 어항공간을 활용한 계류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를 포함한 계류시설은 기본적으로 배후지역과의 연계성, 광역적 수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여건과 맞물려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연안지역에 거점형 마리나 또는 리조트형 마리나만이 조성될 수는 없으며 일부지역에는 간이 계류형 마리나시설의 조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만 계획시 광역적 네트워크 체제를 고려한 시설 개발이 요구된다.

| 그림 4-8 |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이와 함께 단순 기반시설의 조성에서 벗어나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이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변 연안지역에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일반인이 어항공간이나 사로 등을 통한 해양으로의 출입(Public Access)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4-9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의 기능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출입권(Public Access) 확보
▷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및 허브기능의 수행
▷ 허브형 해양레저스포츠시설/지역센터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센터/마리나항만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3.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1) 기초통계의 확보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더불어 추진성과의 주기적 검토를 위해서는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해양레저스포츠는 활동인구나 주요활동 내용, 활동상의 불편사항 등 이용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의 운영현황이나 지역분포, 문제점 등 기초 통계자료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통계조사를 통하여 기초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제약요인이나 개선방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통계 자료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함께 시설조성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기초통계를 통하여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자 참여실태조사 : 활동시기, 주요활동 내용, 활동시 불편사항, 개선방안
▷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현황조사 : 이용자 규모, 이용 시기, 이용 상의 문제점
▷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체 조사 : 사업체 현황, 운영실태 조사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통계집 발간 및 통계포털 구축

2) 정책추진 기반 구축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및 중장기 추진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레저나 해양관광의 촉진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있지만 이는 기본법으로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중 마리나시설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근거 법령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양레저스포츠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의 결정 및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은 앞서 논의한 기초통계의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여건에 대한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결론 및 요약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마리나산업과 크루즈관광산업의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은 기초개념이나 정책의 범위에 대한 설정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레저활동과 관련된 현황이나 활동상의 제약요인 등 기초적인 환경분석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부문의 기초 환경분석과 해외 해양레저 활성화와 관련된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기초개념과 영역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및 레저활동과 관련된 실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영역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레저보트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는 친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이 상호 연계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기본방향의 설정에 따른 정책과제로는 해양레저스포츠의

대중화 체계 구축,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안전프로그램 마련,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의 조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구축 차원에서 기초통계의 확보와 함께 관계 법령의 정비,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제언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의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수문화의 확산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친수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체계적 교육기반의 마련과 활동공간의 조성, 제도적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하여야 한다.

구분	개선방안
대중화 체계 구축	• 해양레저스포츠 정보포털 및 정보연계체제 구축 • 해양레저스포츠 클럽과 동호회 육성/지역단위 대회개최 지원 • 해양레저스포츠 연계 관광콘텐츠/프로그램 개발
레저교육/안전 체계 마련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체계화 • 해양레저스포츠 안전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강사 육성
활동공간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출입권확보 •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및 허브기능의 수행 • 해양레저스포츠센터/마리나항만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해양레저스포츠 기초통계의 확보 • 관계법령의 정비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 해양레저스포츠 유관기관간 거버넌스 구축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경기개발연구원, 『신레저시대의 도래와 정책대응』, 2011.

국토해양부, 『해양관광 통계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1.2.

_____,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2011.11.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2013.

김홍백·이진한, 『레저스포츠 총론』, 형설출판사, 2011.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1.12.

_____, 『국민여가활동조사』, 2012.12.

_____,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2012.12.

_____,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사업』, 2013.

_____, 「스포츠 비전 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8.22.

법제처, 「수상레저안전법 해설」, 월간법제 2000년 5월호, 2000.

조우정·장보영,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도 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4): 419-427, 2013.

탑스넷, 『2013 레저스포츠 현황 및 사고통계』, 2013.

한국마리나산업협회, 『국내마리나 및 요트산업 통계지표 개발』, 2013.7.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백서』, 2013.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안)』, 2003.12.

_____, 『2007 해양관광진흥 세부 실천계획(안)』, 2007.

<국외 문헌>

BMF et al, *Watersports and Leisure Participation Survey 2011*, 2012.

BMF et al, *Watersports Participation Survey 2012 Executive Summary*, 2013.

NOAA et al, *Current Participation Patte1rns in Marine Recreation*, 2001.

NOAA et al, *Projected Participation in Marine Recreation: 2005&2010*, 2005.

Tackers Information & Application Guide for Clubs 2013-2014

Tackers Graphical Standards Guide 2013-2014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レジャ-白書 ：余暇需要の變化と「ニュ―ツ―リズム」』, 2009.

<인터넷 자료>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바다의 역 홈페이지(www.umi-eki.jp)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체육지도자연수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캐나다레저보트안전위원회(www.csbc.ca)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홈페이지(www.전국해양스포츠제전.kr)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홈페이지(www.oleports.or.kr)

호주요트협회 홈페이지(www.yachting.org.au)

Discover Boating 홈페이지(www.discoverboating.ca)

National Marina Day 홈페이지(www.nationalmarinaday.org)

UMI channel 홈페이지(www.uminiikou.com)

Welcome to the Water 홈페이지(www.growboating.org)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낚시어선, 2012년 상반기 497억의 수입 올려' (2012.8.17)

해양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13年 12月 29日 印刷
2013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김 성 귀

發行處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 · 印刷 / 한성애드컴 02-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